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침묵을 강요당해왔고 역사적 진실 또한 은폐되어왔다.<sup>16)</sup>

거창양민학살 사건, '전북도의회 6·25양민학살 실태조사특위' 위원장인 최강선의 글, 또 산청·함양 양민 705명에 대한 국군의 학살 보도 등<sup>17)</sup>을 보면 제2전선주의의 양민학살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2전선의 양민학살은 6.25전쟁 이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작은전쟁 당시에도 유격전선이 형성되어 있었고 49년에는 대대적인 유격대 토벌이 남한군에 의해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청천별력작전 등에 의해 문경, 함평, 영광 등과 같은 지역에서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다.

형과 사촌동생의 주검 밑에 깔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문경 양민 학살사건' 유족회장 채의진(63)씨는 10월 13일 미국의 비밀문서에서 6.25이전 유격대 토벌과정에서 문경주민들이 학살당했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재미 사학자 방선주(66)씨가 입수한 미국 극동군사령부의 비밀문서는 문경 양민학살 사건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터지기 6개월쯤 전인 1949년 12월24일 오후 2시, 국군 2개 소대가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들이닥쳤다. 국군들은 마을주민 100명을 한곳에 모아놓고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부인하는데도 아랑곳없이 국군들은 수류탄을 터뜨리고 소총과 카빈총을 쏘아댔다. 남자 43명, 여자 43명 등 86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이 가운데는 어린이와 노인,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웃사람들의 주검 밑에서 죽은 채 엎드려 있던 14명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다. 집은 모두 불태워졌다. 현지 부대를 지휘한 국군 장교와 경찰은 무장공비들이 마을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상부에 허위로 보고했다.(주한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비망록)<sup>18)</sup>

16)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 6·25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 르포』, 돌베개, 1990 ; 이태섭, 『6·25와 이승만의 민중통제체제의 실상』, 『역사비평』, 1989년 여름호 참조.

17) "50년 고양서 부역혐의자 대학살", 『중앙일보』 1993. 9. 23; 최강선, "6·25양민학살 이제는 밝혀야 한다"; 산청·함양 양민 705명에 대한 국군의 학살은 각각 『한겨레신문』 1994. 1. 8 ; 1993. 6. 7

18) "양민 죽이고 공비소탕 허위보고" 『한겨레』 99.10.13

유족회쪽은 "아직도 공비들에 의해 주민들이 숨진 것으로 호적부 등에 기록돼 있을 만큼 진상이 철저히 은폐돼 왔다"며 "미국의 비밀문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국방부에서는 자료가 없어 당시 사건을 알 수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사저널』이 "문경 양민학살 사건 은폐된 진실 밝혀냈다" (『시사저널』 1995. 3.23.)의 보도가 있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25이전에도 이승만정부의 양민학살은 걸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점이다.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달부락 주민 124명 가운데 86명이, 그것도 여자 41명, 국민학생 10명, 갓난애기 5명까지 단지 국방군을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지휘관의 느낌 때문에 학살되었다. "동네에 인기척이 없으니까 군인들은 화가치민 말투로 '국방군이 와도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빨갱이 마을이다'라고 투덜거리며 집집마다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동네사람들이 뛰쳐나오니까 모이라 해놓고 그냥 총을 쏘았다. 군인 한 명이 '당신들도 여기 있으면 죽여버릴 테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해서 얼른 돌아왔다." 당시 산북면사무소 서기로 학살현장 구호활동을 했던 천규철씨는 이승만 정부가 직접 개입해 조작·은폐 했음을 시사한다. "나는 학살 다음날 면장의 지시를 받고 석달부락에 들어갔는데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공비는 애매한 양민을 대낮에 죽이는 일은 없었다. 공비가 죽었다면 약탈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군인들이 학살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뒤에 신임 문경경찰서장이 공비의 소행이라고 적은 보고문을 면에 보내와 그대로 호적에 올리는 수밖에 없었다." 50년 1월 17일 신성모 국방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족들에 위로 연설까지 했으나 그 이후 이 사건은 공비의 소행으로 둔갑되고 당시 문경경찰서장과 지서주임은 '공비 출몰 총살'을 막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한다.

### 6) 남한전선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6.25전쟁 초기 미군의 남한 땅에서 양민학살은 노근리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었던 것 같다.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경상남도 진주 출신의 어느 7 교수의 전쟁체험담을 들어보자. 전쟁 초기 그의 가족은 어느 초등학교에 머물렀다. 그런데 갑자기 비군 비행기가 두 대가 그 초등학교에 기총사격을 가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인 의령지역으로 긴급히 피난지를 옮겨 다시 그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미군 비행기가 초등학교를 사격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산골짜기로 숨어들어갔다. 그러나 산골에서도 집이 쉽게 노출되는 지역은 곧 바로 미군비행기의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산골짜기에 외딴집에 피신하여 폭격을 피할 수 있었다.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이러한 전쟁체험은 미군비행기의 무차별 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이 특수한 조건에서 특수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6.25전쟁초기에는 남한 땅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커밍스는 그 당시 한국사람들이 대부분 좌익이라는 미군의 판단 때문에 이러한 양민학살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전언이므로 추후 확인할 예정임).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에 대한 큰사랑 없이 공산당에 대한 혐오와 불신으로” 묘사해왔던 『뉴욕타임즈』 대구특파원까지도 시인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공산당이 그들의 고향과 학교를 세워둔 채로 퇴각한 반면, 가공할 무기로 싸우는 유엔군이 일단 주둔했던 도시는 까맣게 하고(초토화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공산당은 심지어 퇴각 중에도 도덕적인 승리를 기록했다.<sup>19)</sup>

이러한 미군들의 전쟁 범죄적 파괴와 양민살상은 지방사의 구석구석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한 지방신문은 이러한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거의 같은 시기에 도천면 어만리 천변에서는 백주에 피난민 대렬에 피신한 인민군으로 인해 [유엔군]의 기총사격으로 사망한 군민도 적지 않고 한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용어리 진 가슴은 호소할 길 없는 울분으로 메워져 있다.”<sup>20)</sup>

이 번에 세계적인 쟁점으로 된 노근리 학살사건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 1950년 7월 25일 충북 영동의 양민을 학살한 쌍굴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자 정은용씨의 진술은 전쟁중 미군의 남한 내 양민학살에 대한 조직성, 공식성, 비우발성, 명령성, 체계성 및 범죄성을 잘 말해 준다.

그들이 피난시켜 주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목적 의식적으로 모은 점, 폭격기와 공동작전을 펼친 점, 굴다리에서 사흘간 계속 총질을 해댄 점 등을 볼 때 ... 나는 ‘작전’과 ‘복수’가 함께 이뤄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대전에서 피난민으로 가장한 인민군 유격대에 크게 당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미군이 말했다는 것처럼 미군은 실제로 ‘의심나는 피난민은 모두 죽여라’는 명령을 받았을 겁니다. 피난민 조사를 통해 그들은 비무장이라는

19) 『뉴욕타임즈』, 1951년 2월 21일자; I. F. Stone, 『비사 한국전쟁』, 신학문사, 1988, 276쪽에서 다시 옮김.

20) 『6.25특집기획: 피 맺힌恨 쌍교산 초막골』 『비사별신문』, 경남:창녕, 1991년 6월 27일.

사실을 알고도 살인을 계속한 것은 대전에서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과 피난민을 살려 둘 경우 언제 인민군들과 합세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일단 ‘학살’을 시작했으니 ‘전멸’시켜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sup>21)</sup>

이러한 정은용씨의 추론은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래의 99년 9월 30일자 『한겨레』의 보도는 이를 확인하였다.

◇ 1950년 7월24일 미 1기갑사단 명령(당일 오전 10시 휘하 8기갑 연대 통신문): 피난민이 (방어)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라. 넘으려 하면 그가 누구든 발포하라. 여자와 어린이의 경우 분별력 있게 대처하라.

◇ 7월26일 아침 미 8군 본부 통신명령: 반복하지 않겠다. 언제 어떤 피난민도 전선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마라.

◇ 7월26일 미 보병 25사단 통신문: 사단장 윌리엄 킨 소장은 전투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발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7월27일 미 보병 25사단장 윌리엄 킨 소장 (재차) 명령: (남한 양민들은 한국 경찰에 의해 전투지역에서 소개됐기 때문에) “전투지역에서 눈에 띄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당시 기관총 사수였던 노먼 텅클러는 “우리는 그들을 전멸시켰다”고 증언했으며, 일부 병사들은 ‘그냥 피하려했던 민간인’들에 대한 발포를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위로 참전했던 로버트 캐롤 예비역 대령도 “상부로부터 민간이나 군인 그 누구도 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7연대 소총수들이 인근 진지에서 피난민을 향해 발포했다”고 말했다. 캐롤은 이어 “첫날에는 북한군이 없었으며, 대부분이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참전 병사들은 또 “중화기 중대장이었던 멜번 쉐들러 대위가 상급자와 연락을 취한 뒤 굴다리 입구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발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으며, 유진 헤슬먼은 “쉐들러 대위가 ‘모두 없애버리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령으로 대대를 지휘했던 허버트 헤이어(88)는 “총격사건에 관해 알지 못하며 그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발뺌했으나, 참전 병사

21) 오연호, “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백여명 학살 사건” 『말』 1994년 7월호, 44쪽, 이 노근리 미군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실화소설 형식으로 쓰여졌다. 정은용,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다리, 1994.

들은 “헤어 대령이 당시 작전을 하급자에게 위임해 놓았다”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 역시 참전 병사인 텔로 프린트는 “나와 다른 병사들도 미군의 공습을 받게 돼 피난민들과 함께 배수로로 몸을 숨겼다”며 “누군가가, 아마도 미군 병사들이, 우리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군의 양민학살이 상부의 공식적인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식문서로 재확인됨에 따라 전국 여러 곳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라북도의회’의 99년 10월 20일자 ‘익산시 폭격 진상규명 대 정부 촉구결의안’이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미군에 의한 익산역(당시 이리역) 전투기폭격과 송학 등 주변일대를 중심으로 무차별하게 기관총을 발사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과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동원사를 보면 1950년 7월 11일 미군기의 오폭으로 익산역 직원과 승객 등 54명이 현장에서 전원 숨졌고, 300여명의 중경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익산역 철도시설 전부를 산산히 부서버렸다는 기록이 있고 그를 입증하는 증언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송학동 주변일대를 미군전투기가 30-40분 동안에 걸쳐서 기관총으로 무차별하게 발사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그에 다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여러 곳에서 밝히지 못하여 엉어리져 있던 가슴을 쓸어 내리며 방방곡곡에서 자행된 미군의 학살에 대한 증언이 일부 나오기 시작하였다.<sup>22)</sup> 경남 창녕군 창녕읍 초막골과 사천군 곤명면에서도 미군의 오폭과 총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막골로 피란갔던 양아무개(79·창녕군 유어면 광산리)씨 등 주민들은 5월 “50년8월 초 새벽 4시께 마을 뒷산 비둘재 고개에서 인민군 2명이 따발

22) 최근까지 보고된 미군의 양민학살 주장은 아래와 같다. 경북고령군 고령교 피난민 다수사상,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약 300명 사망, 경북 울릉군 독도 150명 사망, 충북 예천군 보문면 신성리 약 50명 사망, 충북 예천군 판교면 판교리 10명 사망, 충북 영동군 황간면 121명 사망, 전북 익산군 익산면 이리역 54명 사망, 경북 구미 형곡동 100명 사망, 경북 의성군 금성면 17명,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교 폭파 피난민 다수 사상, 경북 포항시 60명, 경남 함안군 군북면 30명 사망,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0명, 경남 사천시 곤명면 50명 사망, 경남 마산시 진전면 83명 사망, 경남 창녕군 창녕읍 초막촌 80명 사망 등이다.

총을 들고 내려오자 미군이 1시간 여 동안 마을을 향해 총을 쏘아 피난민 100여명이 숨지고 집 40여 채가 불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양아무개(42·부산시 서구 대신동)씨도 “지난 82년 작고한 부친에게서 피란 시절 미군에게 무차별 총격을 받아 많은 양민들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근 유어면 진창마을 14집의 제삿날이 음력 7월11일로 같은 날인 것으로 미뤄 의지로 나간 유가족들을 합치면 100여명이 주민들이 그때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경남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에서도 피난 가던 주민 101명이 미군 비행기의 폭격과 기총소사로 숨지거나 다쳤다는 주장이 나와 사천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50년 7월29일 새벽 인민군을 태운 트럭 20여대가 위장하고 있던 서포~단성 국도에서 폭격기 20여대가 폭탄을 떨어뜨려 이마을 주민 54명이 숨지고 47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남 마산시 진전면 곡안리 ‘성주 이씨’ 집성촌인 이 마을 황점순(74·여)씨들도 “지난 50년 8월11일 오전부터 주민 100여명이 모여 있던 재실을 향해 미군들이 집중 총격을 가해 83명이 억울하게 학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민군이 쳐들어온다”며 경찰과 미군의 소개령이 내려졌으나 어디로 어떻게 피란을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인민군 경찰대로 보이는 2-3명이 재실 옆 대밭에서 미군 진지를 향해 총을 쏘 미군 1-2명이 죽자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해 주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들은 “최소한 ‘학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인사격이나 보복사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sup>23)</sup>

또 충북 영춘 곡계굴에서도 1951년 1월 20일 4백 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당시 폭격장면을 직접 목격한 김옥이씨의 증언은 “폭격 있기 하루 전에 피난민들이 굴에서 나오는데 한 3-4백 명은 죽어 났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폭격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서 다시 모두들 그 굴로 들어갔다. 그러자 말자 미군정찰기가 와서 정찰을 하고 가더니 30분쯤 있으니 또 다른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댔다.”<sup>24)</sup> 미군의 학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도 이러한 만행이 체계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23) 창녕·사천서도 양민학살 있었다” 『한겨레』 99.10.05; 월간 『말』도 마산의 양민학살을 “마산 곡안리 재실에서 쓰러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월간 『말』 1999년 11월 호

24) “제2의 노근리--충북 영춘 곡계굴의 4백원혼: 미군이 피란민 시체더미 촬영해 갔다. 학살의 증거를 공개하라” 월간 『말』 1999년 22월 호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나오고 있다. 또 1950년 11월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면적인 후퇴를 감행할 때 원자 폭탄이 투하된다는 소문을 퍼뜨려 고의적으로 이산가족을 대거 양산하는 등 여러 종류에 걸쳐 있다.

지난 14일 거제 제6포로수용소가 있던 용산마을 부근 농지에서 경지정리 작업을 하던 중 큰 병속에 넣어진 채 비웃에 쌓여있는 이들 문서를 발견해 거제군 공보실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 가운데 '불란서 파리 세계평화 옹호대회 귀중'이라는 제목의 편지는 속옷을 찢어 만든 가로 80cm, 세로 1백20cm크기의 광목에 잉크로 '미군이 북한포로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총기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 '세군무기시험 등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 '세계평화를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고 편지 끝 부분에 '피의 섬 거제도에서 제6수용소 전체 인민군 전쟁포로 일동'이라고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엽서만한 크기의 종이에 깨알같은 글씨로 활동계획을 적은 기밀문서 30점도 발견됐다(『한겨레신문』, 1992년 12월 19일 15쪽).

또 1952년 5월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장인 도드가 포로들에 의해 감금되었을 때 포로들이 도드에게 요구한 4개 조항 가운데 제1조항이 "폭행, 모욕, 고문에 의한 심문, 혈서의 강요를 중지하고 위협, 학살 독가스 및 세군무기 실험중지, 국제법에 의한 전쟁포로의 인권과 생명의 보장"을 제기하고 있어 미군의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암시한다.<sup>25)</sup>

**5. 북한지역 양민학살**

북한지역에 대한 미군의 양민학살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시기는 50년 10월 1일 38도선을 넘어 북한을 4-50일 가량 점령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고 둘째 시기는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 정전협상에 들어간 51년 6월 이후 정전일 마지막까지 자행된 북한지역에 대한 초토화작전에서 행해진 양민학살이다.

**1) 미군강점기간 북한 내 학살과 만행**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 40여일 강점기간동안 미군의 지휘, 감독과 직접적

25) 시성문.조용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판문점 담판] (서울: 한백사, 1991), 256쪽

인 적대행위에 의해서 아래의 표가 보여주듯이 172,000여명의 북한주민이 학살되었다한다. 이 숫자는 직접전투행위나 미군후퇴이후의 폭격 등으로 살상된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강점 40여일 동안 저지른 보복적인 학살만을 포함하고 있다.

학살방법 또한 인간 이하의 잔인성과 포악성을 보이고 있다. 집단적 생매장, 통풍이 되지 않는 건물에 감금하는 질식사, 굶겨 죽이기, 휘발유와 장작불로 태워 죽이기, "눈알을 빼며 귀와 코를 도려내며 산채로 톱이나 칼로 사지를 자르며 피부를 벗기며 불에 달군 쇠로 지지며 산 사람을 땅크로 깔아 죽이며 임신부의 배를 갈라 죽이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야수적 학살방법을 꺼리낌없이 감행했다"고 한다.<sup>26)</sup> 이 잔인한 미군의 학살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곳이 황해도 신천, 안악, 강원도 양양이다. 신천군의 경우 군내의 총인구의 1/4인 35,383명이 학살되었고 그 가운데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이 무려 16,234명이나 된다고 한다.

**일시적강점시기 공화국북반부의 일부지역에서 감행한 미제의 학살만행**

지방이름	학살한 수	지방이름	학살한 수
평양	15,000	평천	3,040
신천	35,383	연안	2,450
안악	19,072	재령	1,400여명
은률	13,000여명	장련	1,199
해주	6,000여명	락연	802
벽성	5,998	평산	5,290여명
송화	5,545	로산	1,385
은천	5,131	봉산	1,293
태탄	3,429	송림	1,000여명
사리원	950여명	회천	850여명
안주	5,000여명	양양	25,300여명
강서	1,561	철원	1,560여명
남포	1,511	원산	630
개천	1,342	함주	648
순천	1,200여명	단천	532
박천	1,400여명	선천	1,400여명
정주	800여명	초산	900여명

26) 『조선통사(하)』, 417쪽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 『조선전사』 26권 129-130쪽

이 강점기간동안 파괴, 약탈행위도 엄청났었다. 5,000여 개의 학교, 1,168개의 병원 및 정휴양소, 260여개의 극장 과 영화관, 675개의 과학연구기관 및 도서관, 수많은 민간주택, 6개의 박물관, 문화유물 6,709점 약탈, 수십만 톤의 양곡, 60%이상의 전체 집짐승, 안악, 룡강의 국보급 고분 등을 파괴 및 약탈했다고 한다.

이러한 미군의 '범죄' 행위에 대해 세계의 여론이 비등하여 1951년 국제민주여성동맹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진상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했다.<sup>27)</sup> 다음은 이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영국인 모니카 펠튼의(Monica Felton)의 기행문인 *That's Why I Went*와 1952년 3월 북한을 방문한 후 작성된 법률가협회의 보고서인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법률협회조사단의 보고서」에 제시된 증언을 중심으로 미군의 학살행위를 살펴보겠다. 펠튼은 평양과 황해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또 이 황해도가 가장 참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sup>28)</sup>

이들 조사단이 황해도에서 처음 확인한 곳은 19,000여명이 살해되었다는 안악이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가두어 며칠동안 물과 음식도 일체 공급하지 않고 심지어는 누울 수조차 없도록 사람을 많이 가두었던 간이 수용소였다. 그곳은 농가의 창고였었고 통풍할 창문도 없이 밀폐된 곳으로 단지 지붕과 담 사이에 있는 길다란 좁은 구멍으로 공기가 통할뿐이었다. 여기에 수 백명이 억류되어 죽었고 몇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그 가운데 한사람은 안악 세산리 172번지에 사는 김산연노인으로 자초지종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미군이 점령한지 며칠후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남자, 여자 성인과 어린이들로 꽉찬 이곳 창고에 그는 수감되었다. 대략 열흘 쯤 뒤에 어떠한 이유인지도 모른 채 석방되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모든 가족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얼마 뒤에야 그의 부인, 아들, 며느리, 2살난 손자가 끌려가 죽었다는

27) 미국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는 것은 로동당의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김일성은 당중앙위 제3차전원회의에서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에서 감행한 모든 죄악을 국제적으로 날카롭게 또 무자비하게 폭로하는 사업을 일층 열성적으로 일층 광범하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놈들이 인류역사상 유례가 더운 온갖 야수적 식인종적 만행들을 세계 인류앞에 더욱 국제적으로 폭로하여 우리의 친우들에게는 미제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적의 진영에 속한 자에게도 미제에 대한 의아심을 조장함으로써 이 야수들을 더욱 철저히 고립시켜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자료집』2, 99쪽.

28) 아래의 기술은 다음에 대부분 의존한다: Monica Felton, *That's Why I Went*, Lawrence & Wishart, 1953;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 김주환역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1989.

것을 알았다. 부인의 시체는 찾지 못했으나 “아들과 며느리가 밧줄로 함께 묶여서 죽어 있었다. 아무런 상처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산채로 매장당한 것 같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정당이나 침략에 항의한 적이 없었다. “미국사람들은 신사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인은 기독교도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는데!” 펠튼이 그 노인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세 번씩이나 물으니까 그제야 “나는 일생동안 기독교를 믿어왔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 일컫는 자들이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을 본 이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군요.”라고 말하면서 그의 연약한 몸을 부르르 떨었다(Felton 1953, 133-35).

유사한 내용의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감을 고 마태오 신부는 아래와 같이 전한다.<sup>29)</sup>

삼촌, 방금 삼촌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미국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전쟁 중에 행한 그들의 행동은 조금도 그리스도인 답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전쟁의 짓거리라고 그런 만행을 한마디로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굶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낱알이 여물기만 기다리던 전답의 곡식을 불살라 버리고 또 아무런 군사시설이 없는 농촌의 평화스러운 새벽에 폭격으로 진동시켜 할아버지와 여러 형제가 화염에 싸여 죽게 한 것도 미국 군인의 소행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움을 배웠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안악군 송화리 117번지에 살다 신천의 창고수용소에 간혀서 간신히 죽음을 면한 28살의 양연득여인의 이야기는 이리하다. 어린이 다섯과 남편을 가진 7식구였으나 미군이 강점하자 남편은 즉시 살해되고 그녀와 다섯 어린이는 어떤 창고에 수용되었다. 이 창고는 약 300여명의 여자와 어린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 좁은 수용소에서 밀고 밀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그녀의 두 살난 어린이는 밧혀 죽었다. 며칠 뒤 미군 두 명이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례로 성폭행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 겨우 도망쳐 나와 신천이 다시 '해방'될 때까지 숨어 지냈다. 해방된 뒤에야 비로소 그녀의 네 어린이들이 그곳 창고수용소에서 불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창고 근처에 죽은 어린이와 어른의 시체를 묻은 묘지가 있었고 그 넘으로는 완전히 어린이만 수용했던 수용소가 있었다. 그러나 이 수용소는 최근

29) 고 마태오 신부, 『아, 조국과 민족은 하나인데』, (서울: 중원문화, 1988), 111쪽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미군의 고성능 폭탄에 의해 파괴되었다. 나중에 주위의 주민들에 들어니 이 수용소와 묘지들 주위의 모든 지역을 미군들이 자주 폭격했다고 한다. 미군이 저질른 죄악에 대한 증거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폭격을 계속한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일행은 그 지역에 움푹 파인 폭탄구덩이를 피하기 위해 종종 우회로로 돌러가야만 했었다 (Felton 1953, 146-47).

신천에서 35킬로메트 떨어진 김지리에 살던 조선로동당의 활발한 당원이었던 변동난의 어머니 김연의 이야기.

아마도 내 죽은 딸이 이 애미가 여기와서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여기 왔소. 그 애는 당신들과 같이 이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걱정하고 노력하는 여자였소." 그 딸은 미군이 진입하자마자 곧 체포되었다. 면회를 한번 갔을 때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숨겨 간직하고 있던 공화국 국기를 건네주며, 자기는 곧 살해될테니 "슬퍼하지 말고 조국이 언젠가는 해방될테니 그때까지 국기를 잘 숨겨두었다가 해방이 되는 그날 가장 높은 곳에 그 국기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며칠후 이승만의 병사하나가 미군장교의 명령대로 내딸과 옆고 있던 어린애의 몸을 총검으로 한꺼번에 찔렀다고 자랑했다. 내 외손자도 함께(Felton 1953, 147-48).

법률가협회보고서는 미군의 범죄행위를 아래와 같이 더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미국군대가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에 들어온 바로 그 날에 우말재의 가족에 대해 끔직한 범죄가 감행되었다. 미국인들은 증인의 남편의 손과 귀와 코를 쇠줄로 꿰어 뚫었다. 그들은 방에 있던 노동표창장을 그의 이마에 못으로 박아 붙이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고문했다. 5세로부터 25세에 이르는 11명의 우말재가족의 자녀들은 즉석에서 총살되었다. 우말재의 며느리는 미국장병들이 그 시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하였다. 미국인들은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나무에 비껴어 맨 다음 젖을 빼고 국부에다 막대기를 박고 기름을 부은 다음 불을 질렀다. ... 이 범죄에는 약 20명의 미국장병이 참여하였다(김주환 1989, 187).

1950년 10월 25일 사리원시에서 MP완장을 찬 한 미국군인은 김창두라는 사람에게 끔찍한 살인을 감행하였다. 그는 칼을 가지고 목에서부터 아랫배까지 희생자의 피부를 찢고 산채로 피부를 벗기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다가 잘

안되니까 그는 희생자를 들로 때려 죽였다. 1950년 11월 11일 한 젊은 여성은 3명의 미국인들에게 강간당하였다. 이 여성은 몹시 구타당하였으며 또한 발로 채였으며 그의 목구멍에는 물을 부어 넣었다. 다른 병정들은 56세 된 노파를 강간하였다(김주환 1989, 188).

해주시에서 미국병정들은 지방여맹위원장인 조옥희라는 젊은 여성을 고문하였던 바 이 여성은 증인과 같은 감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조사단원들이 심문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미국군대는 그 여성에게 장시간에 걸친 고문을 하였다. 처음에는 그 여성의 눈을 뽑고 얼마 뒤에 그의 코를 베었고 마지막에는 그의 젖을 베었다(김주환 1989, 188).

## 2) 전쟁 소강기 북한 영민학살

1951년 초여름부터 전선은 대체로 38선을 경계로 소강상태에 빠졌다. 이 소강상태란 지상전 전투행위의 소강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중전과 해상전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 있던 미군의 공습이나 해상함포사격등이 소강상태를 유지했다는 뜻은 아니다. 전선아닌 후방에서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생업의 현장에 대한 해상, 공중포격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살해되고, 생존수단을 파괴당하는 끔찍한 전쟁체험을 하였다. 더구나 51년 7월 이후 정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민간인과 비군사 민간시설에 대한 살상과 폭격행위는 계속되었고 정전이 실효되는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정각의 1분 직전까지도 지속되었다.<sup>30)</sup>

전쟁초기 6개월 동안 미국동공군폭격사령관을 역임했던 오도넬이 맥아더 청문회 증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군이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북한의 5개 주요도시는 (평양, 성진, 나진, 원산, 진남포) 철저히 파괴되었다.

30) 북한의 남일과 미국의 해리슨이 정전조약에 서명한 12시간 이후부터 모든 지상, 해상, 공중의 전투행위는 중지하게 되어 있었다. 군사적 좌절감에 빠진 미국은 정전협정 서명후 발효까지의 12시간 동안에 이러한 패배감과 분노를 타락하고 야만스런 보복행위로 표출시켰다. 하나는 정전서명 1시간 20분 직후 미국 세이버 제트기 4대가 중국영토 100Km내에 있는 민간비행장에 침투해 소련 민간항공기를 폭격해 1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살상했다. 또 하나는 정전발효 30분 직전에 중폭격기 편대가 평양시를 마지막으로 강타한 일이다. 울분에 휩싸인 야만적인 광기와 '자유와 평화의 사도'라는 야누스적인 미국의 모습에서 참모습은 오히려 전자가 아닌가 여겨지는 행위이다. Alan Winnington & Wilfred Burchett, *Plain Perfidy*, London: The British-China Friendship Association, 1954, p.55

나는 전부, 한반도의 전부가 정말 놀랄 만큼 어지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름 값을 할만한 것은 아무 것도 서 있지 않습니다. 중공군이 들어오기 바로 전에 우리는 무기를 손에서 놓게 되었으니까. 한국에는 더 이상 목표물이 없습니다<sup>31)</sup>

신의주의 폭격상황을 조카 홍윤으로부터 소상히 들은 홍동근목사는 이렇게 전한다.<sup>32)</sup>

1950년 가을, 미군폭격기 B-29가 80대 이상 연 사흘 신의주를 폭격하고 특히 소이탄으로 폭격하여 전 도시를, 집과 사람을 불로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신의주 20만 사람의 삼분지 이의 사람이 타죽고 도시의 80%가 잿더미가 되었다 한다. 문자 그대로 무차별 야만적 폭격을 하여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불태워버렸다. 거기 내 작은 형님과 형수님과 철이가 불에 타 죽었다. 또 수 없는 동족의 부녀자들이 불타고 내 배움의 고향이 재가되어 없어졌다. 큰 형님 말씀이 그 불기둥으로 신의주의 밤이 붉었고 낮에도 타는 연기로 하늘이 먹구름이 되었다 했다. 이를 위해 맥아더가 한국 백성들에게 '맑은 연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었던가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폭격이 동해안 최대도시인 원산의 경우 정전 1분전까지 계속되었다. 미 해군함정이 원산을 41일 동안 밤낮 없이 연속적으로 포격했으며, 현대 미해군사상 최장일인 861일 동안 포위 공격했다. 미해군소장 스미스는 "원산에서는 길거리를 걸어다닐 수 없다. 24시간 내내 어느 곳에서도 잠을 잘 수 없다. 잠은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기술했다.<sup>33)</sup>

1953년 3-4월경 평양과 원산의 전후 상황을 『조국: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sup>34)</sup>

평양 시내 건물이란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부서져서 허허벌판이 되어 있었다. 더구나 평양시민들은 오갈 데가 없이 부서진 집 속에 토굴 비슷하게 파놓고 살아가는데 마치 원시인들 같았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빈민

31) 스톤 앞의 책, 334쪽

32) 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 (서울: 한울, 1988), 119쪽

33) 브루스 커밍스와 존 할리데이,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1989, 158-9쪽

34) 김진계 구술. 김응교기록 보고문학, 『조국: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상권, (서울: 현장문학사, 1990) 182쪽

소굴이요 난민 소굴이었다. 식량도 동이 날대로 나버렸고 비바람을 피할 천막이나 움집조차도 없었다.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하나 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보다 죽어 나자빠진 시체가 더 흔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반쯤은 죽어 있었다. [...] 전쟁 후 원산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곳도 평양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평양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 미군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가라도 야간에 불빛만 비치면 굶주린 개가 고기를 본듯이 공격을 했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평양에 대한 초기의 대대적인 공습은 서울이 중국군과 인민군에 의해 다시 점령된 1951년 1월 3일에 행해졌다고 국제여맹시찰단 펠톤은 말한다(Felton 1953, 116-17). 폭격은 3일 밤에 시작되어 그 이튿날 정오까지 계속되었다. 비행기는 15분 간격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처음에는 소이탄, 다음에는 네이팜탄, 고성능폭탄, 그리고는 다시 더 많은 량의 소이탄과 시한폭탄을 연속적으로 투하했다. 이러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습 때문에 조직적인 구조작업은 불가능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난파된 잔해 속에 깔려 구조 받지 못하고 질식사 또는 압사했다. 국제여맹 조사단이 방문한 5월까지 시체들이 치워지지 못한 채 남겨져 있었다. 수만 명의 주민이 불에 타 죽었다. 그날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가운데는 시내의 대부분 병원들이 포함되었다. 8000미터 상공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표시를 해놓은 병원들도 미군의 폭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북한 의무상은 유엔에 이 잔악한 야만성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더 이상 파괴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는데도 미군의 폭격은 오늘날까지도 밤낮 연속으로 계속되어 이미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고 있다. 때때로 우리들은 시한폭탄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한번은 시한폭탄이 10분 간격으로 연속 폭발하였는데 이 폭탄들은 1주일 전에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도시주민들은 대부분 도시를 떠나야 했다. 평양의 인구도 50만에서 약 5만으로 줄어들었다. 농촌이라고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동굴이나 지하방공호에서 헐거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석유덩어리로 만든 신형무기인 네이팜탄은 가공스런 살상을 저질렀다. 높은 공중에서 폭발한 네이팜은 조그만 산탄으로 사방에 퍼져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태워버리고 사람의 살에 붙어서 몸을 불태워버린다. 시한폭탄은 철저한 인마살상용이다. 공습에 희생되거나 다친 이웃, 친지, 가족을 구조하기에 정신없는 동안 이 시한폭탄은 다시 이 구조대를 살상. 파괴하는 것이다. 장마철에 평양근처의 저수지 댐을 폭파시켜 농토와 관개시설과 주위 주거지 소실, 화학전과 세균전의 감행<sup>35)</sup>, 문화재의 약

탈과 파괴, 민간재산의 고의적 파괴, 대규모 폭격작전인 '교살작전', 500대 이상의 비행기를 동원해 북한전력공급의 90%를 차지했던 수풍댐과 발전소의 파괴 등 미군의 야수적 전쟁범죄로 인해 북한의 전 영토와 중부지역이 거의 완전 초토화되었다 (커밍스와 할리데이 1989, 174).

북한 쌀의 3/4을 생산하는 평야에 물을 공급하는 평양근교의 5개 댐에 대한 폭격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모내기가 끝난 장마철에 댐을 폭파시킴으로써 이 인위적인 대홍수는 27마일의 계곡과 평야를 휩쓸어버리고, 범람한 대동강 물은 평양시와 인근 주거지역에 인명과 재산, 그리고 생존의 기초인 쌀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를 두고 몇 명되지 않는 양심적인 서양사가들은 "그 같은 종류의 행위가 자행된 경우가 1944년 네델란드에서의 나치의 만행인데 그때는 뉴른베르그 회의에서 전쟁범죄로 다뤄졌었다" 라고 기술한다 (커밍스와 할리데이 1989, 198). 자유와 평화의 탈을 쓰고 저질러진 야수적 만행과 이를 국제문제화하지 못하는 철저한 '힘의 국제정치'의 부도덕성이 노골적으로 자행된 대표적인 경우가 이 '추악한 전쟁'인 한국전쟁인 것이다.

이러한 범죄적 폭격의 흔적은 1955년까지도 그대로 목격된다.

평양역에 도착할 때까지 픽 여러 번 정거하였지만 한 개의 역사도 제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으며, 철도 연변에서도 도시나 마을 같은 것을 한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황야 속의 무인지대를 달음질치는 듯한 느낌이고, 기차가 멈추는 곳마다 산기슭에 몇 개의 토담집이 웅기종기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리원만은 옛날에는 여기서 하나의 도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을만한 벽돌집들의 허물어진 형체가 남아있고, 멀리 학교교사인 듯한 새 건물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도 ... 인간 도살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부산간을 몇 번씩 왕복하면서도 이런 감정은 느껴보지 못했는데, 나는 개성서 평양까지 오는 동안에 전쟁 중에 감행된 처참한 발자국들을 보면서 전쟁의 무서운 파괴력 앞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sup>35)</sup>

35) 화학전과 세균전의 논의에 관해서는 김주환역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1989에 수록된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 보고서」와 「한국과 중국에서의 세균전 사실에 대한 국제과학조사단의 보고서」를 참조할 것. 보다 자세한 논의는 강정구,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동국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 『동국사회연구』, 창간호 1992. 또한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역사비평, 1996) 제2부 2장에 수록되어 있음.

36) 김낙중, 김남기, 『굽이치는 임진강: 민족통일의 갈망을 안고 임진강을 건너간 한

공습과 포격에 의해 죽고 부상당한 무고한 시민들을 구조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대부분 서방의 언론들은, 특히 미국의 유괴통신을 필두로 해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외면하거나 왜곡된 당국의 발표를 확대 복제해 내는데 그쳤다. 특히 세계의 여론이 정전협정을 조속히 완결 짓도록 미국에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로 공습과 폭력행위를 빈번히 일삼았던 미국을 서방언론들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거의 부인했지만, 후에 공식적인 미군사에서 미국은 중립지역에 대한 포격과 기관총사격 그리고 회담 중에 있었던 공산 측 대표단의 경호원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수많은 위반사항을 인정하였다. 1952년 봄에 행해진 위반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미군사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UN군 대표들이 이와 같은 비난들 중 일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N군 대표들이 시종일관 수세에 처할 만큼 많은 위반사항들이 있었던 것이다.'<sup>37)</sup>

이상과 같은 양민학살과 파괴행위에 대해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보고서는 이 것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작위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쟁범죄이었다고 규정짓고 세계법정에 출정시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단은 미국정부와 미군의 최고사령부지도자들의 완전한 승인과 계획 없이는 이 대부분의 범죄들이 감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본 조사단은 이 사람들과 이들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전선의 모든 지휘관들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수락하고 집행한 모든 개별적 병사들을 고발한다(김주환 1989, 206).

전쟁피해는 막대하였다: 최소한 인구의 12-15%가 죽임을 당했고<sup>38)</sup>, 5천여 개의 학교, 260여 개의 극장과 영화관, 1천여 개소의 병원, 2천8백만평방메트의 주택 등이 파괴되었고, 25만두의 소, 38만두의 돼지, 37만 정보의 농지피해, 관개시설 특히

젊은이의 열정과 고난』 (서울: 삼민사, 1985), 169쪽

37) 커밍스와 할리데이, 앞의 책, 163쪽; 정전협정을 고의적으로 결렬, 지연시키기 위한 미국의 이중속임수와 서방언론의 무비판적 수용에 관한 훌륭한 글로는, Alan Winnington & Wilfred Burchett 앞의 책

38) 존 할리데이, 「북한의 수수께끼」,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 중원문화, 1990, 83쪽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저수지 댐의 파괴로 인해 1953년의 알곡생산은 1949년에 비해 88%로 감소되었으며, 8촌7백 여동의 공장과 생산설비 등이 파괴되어 1949년에 비해 1953년은 전력공업은 26%로, 연료공업은 11%, 야금공업은 10%로, 화학공업은 23%로 감소되었으며, 철광석, 선철, 강철, 조동, 조연, 전동기, 변압기, 유산, 화학비료, 카바이드, 가성소다, 세멘트 등 생산시설들은 완전히 파괴되었다.<sup>39)</sup>

7. 맺음말

그 동안 노근리 주민들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지난 60년 10월 미군이 설치한 소청심사위에 진상 규명과 배상을 요구했으나 심사위의 포리백만 법무대위는 회신문(문서번호 FCC/802/60/228)에서 증거와 시효를 들어 거절했다. 주민들은 같은 해 12월과 94년 7월, 10월에도 미국 정부와 클린턴 대통령에게 사과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97년 8월에는 청주지검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낸 신청도 역시 증거와 시효를 이유로 기각됐다. 주민들은 올해 초에도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미국방성에 질의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통신사가 관련자 증언과 공식기록을 확인하자 노근리학살사건은 국제적 쟁점이 되고 사회문제화 되었다. 미국정부는 이제까지의 부인일변도 자세에서 진상조사에 응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진상규명이 이들의 선의와 자의에 맡겨졌을 경우 호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유가족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의존할 수도 없다. 핵심은 시민단체의 주도로 유가족, 시민, 국제인권 및 평화단체가 연대하여 공동대응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미군양민학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이나 한국정부의 진상규명에 이 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근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여기서 북한에서의 양민학살, 국방군과 경찰에 의한 양민학살에 이르기까지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배상, 사죄, 재발방지책

3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1958간행) 서울: 오월, 1989년 영인간행, 468-69 쪽; 또한 전쟁파괴상황에 대해서는 박창욱,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보고”, 김준엽·김창순, 『북한연구자료집』, 제2집, 서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528-29쪽

장구, 역사기록 남기기 등으로 매듭 지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서해교전을 강제한 남한의 반이성적인 언론과 이에 부화뇌동한 정치인이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전쟁광적인 모습은<sup>40)</sup> 한국전쟁에서 저질러진 미군 등에 의해 저지르진 양민학살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당시 북한이 자제하기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용진반도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참화로 귀결될 뻔하였음을 상기할 때 모골이 송연할 수 밖에 없다. 또 한 때 극좌적인 주사파를 지향하였다 투항·변절한 김영환과 같은 북한인권론자 무리들이 대북전쟁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철부지의 어린애 같은 소리인지를 그들은 자성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우리는 지난 94년의 영변핵위기 당시 미국에 의해 기도된 전쟁일보적 전의 상황과<sup>41)</sup> 99년 금창리핵위기를 근거도 없이 조장한 미국과 일본의 전쟁광들에 의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중국의 무력개입, 이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무력개입과 더불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치르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대로 주시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울 때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땅에서 전쟁의 씨앗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사교훈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정구, <좌절된 사회혁명: 미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열음사, 1989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고 마태오 신부, 『아, 조국과 민족은 하나인데』, 서울: 증원문화, 1988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

40) 이에 대해서는 강정구, “김대중정부 통일정책의 평가와 전망” 『진보평론』 창간호, 1999  
 41) 1999년 8월 KBS의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면담에서 당시 핵대사였던 갈루치는 ‘몇 분만 늦었다’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핵폭탄적 발언은 당시 한반도가 얼마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김주환역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1989.  
 권영진, 『6·25살상 다시 본다』, 『역사비평』 1990년 봄호  
 김낙중·김남기, 『굽이치는 임진강: 민족통일의 갈망을 안고 임진강을 건너간 한 젊은이의 열정과 고난』 (서울: 삼민사, 1985), 169쪽  
 김성철, 1993,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  
 김익렬,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에 부록에 수록  
 김주환역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1989.  
 김진계 구술·김용교기록 보고문학, 『조국: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상권, (서울: 현장문학사, 1990)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20호, 1993년 봄,  
 노가원, 『남도부』(상), 월간 말, 1993,  
 반핵평화운동연합, 『손병선 의장 모두진술』, 서울, 1992,  
 안종철,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 여수지역 편』 1998.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 여수지역 편』 1998.  
 정은용,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다리, 1994.  
 정진상, 『한국전쟁과 계급구조의 변동』,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창립10주년기념논문집,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 1994, 118쪽).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6.25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르뵈] (서울: 돌베개, 199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역음, 『주한미군 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한국일보 편,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유성철·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정』, 한국일보사, 1991  
 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 (서울: 한울, 1988), 119쪽  
 커밍스와 할리데이,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1990,  
 Monica Felton, *That's Why I Went*, Lawrence & Wishart, 1953  
 Alan Winnington & Wilfred Burchett, *Plain Perfidy*, London: The British-China Friendship Association,

## 해외언론보도 : 로이터 통신

### 한국군 양민학살, 세계적 이슈로

<로이터 통신> 베트남 정부 취재불허 속에  
'빈딘에서의 학살' 특집기사로 보도

고경태/한겨레21 기자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 통신사인 영국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월11일 '한국의 어두운 베트남 전쟁 유산' (S. Korea's dark Vietnam War legacy)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전세계에 타전했다. 로이터는 <한겨레21> 구수정 통신원의 양민학살 진상추적 노력을 전한 뒤 1천명의 양민이 살해된 빈딘지역의 행정관리 세명을 인터뷰했다. 이 문제가 한국과 베트남이 아닌 제3국의 언론에서, 그것도 세계적 통신사에서 보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정부관리들 인터뷰... 현장엔 접근 못해

<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타이선현 공산당 역사담당 부서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군에 의한 양민공격은 66년 초에 시작했으며 같은 해 2월26일에는 고 자이로 불리는 한 장소에서 380명이 집단학살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군은 주민들을 언덕 위로 데려가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졌으며, 어떤 경우엔 노인들을 끈으로 묶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뒀고, 어린이들의 몸을 찢어 손과 발을 나무 위에 내던지기도 했다”는 끔찍한 상황도 전했다. <로이터>는 이와 함께 “6주간에 걸친 살육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은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그 숫자는 1004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기자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세계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는 현지관리의 말을 덧붙였다.

<로이터>는 빈딘에서의 학살이 미군들이 육군 중위 윌리엄 켈리의 명령을 받고 선면마을에서 500명을 죽인 밀라이학살과 매우 대비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의 집단학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 사건은 전세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로이터>가 보도한 빈딘에서의 양민학살 내용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한겨레 21>273호(99.9.2) 특집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중 '저주의 욕설, 화해의 술잔' 부분과 대동소이한 것들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겨레21> 기사가 66년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주민들의 증언에 기초해 작성된 반면, 로이터는 현지관리들의 발언만 인용보도해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로이터의 현장취재활동이 베트남 정부쪽에 의해 불허됐기 때문이다. "베트남 외무부는 이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어떤 논평이나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기자가 생존자들과 만나기 위해 빈딘을 방문하려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외무부는 이 문제에 더이상 집착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 베트남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

<한겨레21>의 273호 특집보도 이후 로이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문제를 주목해 왔다. <한겨레21> 보도가 <투오이찌>에 계속 실리면서 베트남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애초 영국 현지 촬영스텝을 파견해 다큐멘터리를 찍을 예정이었다(<한겨레21>287호 특집 '베트남의 뜨거운 감동' 참조). 그러나 베트남 정부쪽의 취재허가가 계속 지연되면서 보도기사부터 타전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언론들이 '한국군 양민학살' 관련 기사를 연이어 취급하자 현재 베트남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보도 자제 방침을 각 언론사에 내려보낸 상태다.

<로이터>는 기사 끝머리에서 베트남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련해 하와이 아시아태평양양안보센터 베트남 전문가 칼 테이어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은 베트남전쟁이 주로 미국인들에 대항한 전쟁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 전쟁은 부도덕한 미국 정부에 의해 촉발된 전쟁일 뿐이다. 한국인·타이인·오스트레일리아인 등은 모두 그저 미국 정부의 추종자에 지나지 않는다. 베트남의 선전선동가들은 오직 하나의 주적(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나라를 상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 뿐이다. 베트남 정부는 그들로부터 투자와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한국군 '양민학살' 관련 로이터 통신 보도 번역문 전문

한국의 어두운 베트남 전쟁 유산  
-한국의 한 언론인,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들에 대한

### 잔학행위를 보도하다

딘 에이츠기자

중부 베트남 빈딘 성에는 화강석에 1004명의 이름들이 선명하게 새겨진 큰 비석이 우뚝 서 있다. 피해자들과 지역 행정 관리들은 베트남전 기간에 한국군이 저질렀던 학살극에 대해 진술했다. 이들은 1966년 초 단 하루만에 380명이 몰살당한 것을 비롯해 6주간에 걸쳐 모두 1000여명의 양민들이 무참히 살해됐다고 증언했다.

빈딘 성에서의 한국군 양민학살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몇개월 동안 생존자들을 추적해온 한국의 한 언론인은 이제는 한국정부가 당시 한국군의 잔학행위를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베트남 통신원인 구수정씨는 베트남 종전 25돌(오는 4월)을 앞둔 시점인 다음달 제주도에서 열리는 인권회의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파악한 진실들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

구씨는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 문제를 연구하던 과정에서 그 비석을 발견했고,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들의 증언은 미군이 1968년 밀라이 마을에서 저지른 악명높은 양민학살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구씨는 자신의 조사보고서가 한국군의 양민학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난해 5월 <한겨레21>에 썼던 기사는 베트남 참전 퇴역군인들로부터 목살당했다. 그들은 베트남 빈딘지역에서 양민들이 살해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국인들은 이 양민학살 사건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것이며, 우리는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 구씨는 말했다.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한국은 전심전력을 다해 미국을 지원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킬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약 30만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싸웠고, 이들은 베트남 주민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세명의 베트남 관리들(이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이 한국군의 양민학살 현장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말했다)은 <로이터>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빈딘지역에서 벌어진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증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들에 따르면, 한국군은 1966년 초 당시에는 빈안으로 불리던 다이빈 사에 진입했다. 그곳은 한국군이 베트남의 거점지역으로 믿었던 다이선 현안의 몇몇 부락이 모인 지역이었다. 한국군은 적대세력들을 소탕하려 했으나, 주민들은 한국군의 행동을 정면에서 맞섰다고 관리들은 진술했다.

다이선 현의 공산당 역사담당 분과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에 의한 양민공격은 1966년 초에 시작됐으며, 그해 2월26일 고자이에서의 380명 집단학살로 절정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 관리의 “한국군은 주민들을 언덕 위에 몰아넣은 뒤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다”며 “노인들을 끈으로 묶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두고, 어린이들의 몸을 찢어 손과 발을 나무 위에 내던진 경우마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학살된 사람 가운데는 약간의 베트남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군들은 또 시체들을 500~650피트 길이의 참호에 내던지기도 했으며, 생존자들이 나중에야 죽은 사람들의 주검을 매장했다고 그는 말했다. 고자이 지역에서 숨진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6주간에 걸친 살육전의 다른 희생자들 중 신원이 밝혀진 사람들의 이름은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그 숫자는 1004명에 이른다고 그는 말했다. 이 관리의 “이 지역에서는 집단학살 문제의 여론화 작업을 많이 해왔으나, 고자이 양민학살을 증언할 생존자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세계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았다는 다른 한 관리의 희생자들이 주로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었다고 진술했다. “집단학살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한국군 전술지침의 일환이었다. 그 목표는 전 지역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노인과 어린이들을 살해하고 가축을 죽이고, 집과 곡식까지 불태워버린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이선 현의 인민위원회 관리도 1200명이 죽임을 당했다면서 앞의 증언들을 재확인해 주었다.

하노이의 한 정부관리는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빈딘 사건을 조사해 자세한 보고서를 펴냈으며, 이 보고서는 고자이 지역의 약 380명을 포함해 그 기간동안 1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 외무부는 이 집단학살사건 주장에 대한 어떤 논평이나 사실 확인

을 거부하면서, 이 문제를 재론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 기자들은 생존자들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빈딘을 방문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외국기자들이 하노이 밖에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베트남 외무부는 빈딘지역 홍수의 여파로 현지 관리들이 너무 바빠 방문객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베트남 외무부는 <로이터>의 질의에 대한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군은 베트남 주민들에 대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인도적이고 평화롭게 이웃나라와 지내는 전통에 따라 과거를 닫는 게 베트남의 정책이다...”

하노이에 있는 한국대사관은 베트남전 기간에 이뤄진 한국군 행위와 관련된 전반적 문제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하기를 거부했다.

또 베트남 ‘노동과 상이군인 및 사회부’ 산하 전쟁범죄조사위원회에 보관돼 있는 집단학살과 관련된 공식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베트남 외무부는 해당부서 관리들이 너무 바빠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빈딘지역의 한국군 집단학살 문제는 한국정부가 1950~53년 한국전쟁 초기에 미군들이 저지른 노근리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터져나왔다. 노근리 주민들과 한국전 참전 미군들은 이곳에서 수백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몰살당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몇년간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역할을 조사해온 전경수 서울대 교수는 (한국정부의) 이중잣대를 지적한다. 그는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행위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 집단학살 문제에 대한 주목도는 지난 1968년 3월16일 미육군 중위 윌리엄 켈리의 지휘 아래 미군이 양민 500여명을 사살한 ‘밀라이 사건’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당시의 집단학살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전쟁의 끔찍함’의 동의어가 됐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98년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행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자기 땅에서 싸웠던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말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로 반응했을 뿐이다. 베트남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부가 과거 프랑스나 미국에 대해 수십년동안 싸웠던 전쟁에서의 특정 잔혹행위들을 부각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하와이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 베트남 전문가 칼 테이어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 학살은 베트남전쟁이 주로 미국과의 전쟁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베트남의 선전가들은 언제나 미국 정부와 미국 사람들을 따로 구별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전쟁은 부도덕한 (미국)정부에 의해 촉발된 전쟁일 뿐이다. 한국인, 타이인, 오스트레일리아인 등은 모두 (미국 정부의) 추종자에 지나지 않는다. 베트남의 선전선동가들은 오직 하나의 주적(미국 정부)에 초점을 맞춰야지 여러 나라를 상대하면 오히려 이슈가 흐려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칼 테이어는 또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이 지역국가들로부터 원조와 투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적 짐이 자신들을 내리누르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21 293호-

시민이 바라보는 양민학살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시민이 바라보는 양민학살 그리고 우리가 할 일  
: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시민들이 먼저 사과합  
니다.**

## 1억원을 모아주십시오

성금모금운동 중간결산...  
양민학살지역에 학교를 지어줍니다

고경태/한겨레21 기자

<한겨레21>이 지난 280호(99년10월28일)부터 시작한 ‘베트남전 양민학살 악몽 청산을 위한 캠페인’이 이번호로 20회를 맞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정성 덕분에 3월4일 현재 6천5백6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성금구좌로 돈이 입금된 건수만 750건이며, 이 운동에 동참한 독자 수는 3천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예비아빠는 아기의 작명에 쓰라고 장모님께 받은 출산축하금을 털어서 보내기도 했고,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김장비용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사찰과 학교에서, 신도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금운동이 전개됐습니다.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천만원. 이 귀한 성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양심이 결코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이제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양민학살의 유산을 청산할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성금모금 캠페인은 베트남전 종전 25돌을 맞는 오는 4월30일 전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겨레21>은 그때까지 모은 성금으로 한국군의 양민학살이 있었던 지역 중 한 지역을 골라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한겨레21>은 한국 국민들의 사죄노력을 남길 여러 사업들을 검토한 뒤 이 일이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겨레21>과 ‘양민학살 보도’의 호응을 맞췄던 베트남의 <투오이찌> 관계자도 교육시설이 낙후된 시골에 학교를 지어주는 일이 가장 적절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최소한 1억원은 있어야 16개반 규모의 학교건설

이 가능할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겨레21>은 이에 따라 캠페인 성금목표액을 최소 1억원으로 잡고, 남은 두달 동안 성금모금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캠페인은 여느 성금모금과는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인사들이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도 그 중 한 가지입니다. 베트남 캠페인의 성금액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한겨레21>이 96년 11월부터 97년 5월까지 전개했던 ‘정신대할머니 은겨레돕기운동’ 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최종모금액은 3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수성 당시 국무총리와 이회창 신한국당 상임고문 등은 물론 김수환 추기경도 성금운동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캠페인’ 은 다릅니다. 아직까지 정치권 인사의 참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웬만한 관리나 재계인사들은 “베트남” 의 ‘베’ 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칩니다. 아직까지 베트남전쟁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거꾸로 6400만원 성금액의 가치가 여느 성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독자 여러분.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에 대한 사죄노력은 우리 사회의 위선과 야만의 뿌리를 송두리째 캐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우리 사회의 불우이웃을 돕는 일만큼이나 중요할뿐더러, 정신대할머니 돕기운동에 비해서도 결코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발걸음에 큰 힘을 주십시오. 아직까지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독자들께서는 은행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을 통한 송금방법도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친지나 친구분들에게도 적극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베트남전 양민학살 사죄노력은, 다른 전쟁범죄 국가들의 사죄를 촉발시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21 299호-

## 시민들의 참회의 목소리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입니다. 노근리 양민학살이 세계에 알려졌을 때 이곳에서도 한국단체들이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때 한국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총선의 열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나 봅니다.

우리 민족은 외침을 많이 받고 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시간으로 때워서 잊어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일제시대의 정신대가 없었다고 말하는 일본인들과 다를 것이 없으며 노근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위원회를 보낸 미국 정부로부터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침묵은 정신대에서 희생된 한국 여성들과 노근리에서 사라져간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참된 용기 아닐까요? 특별히 남이 물리적인 힘으로 용서를 요구하지 않을 때...

남궁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워요

28년 동안 한국땅에서 살면서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황영조, 박찬호, 박세리, 김미현 선수 등이 뛰어난 실력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높였다고 환호성을 지를 때도 그들로 인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뛰어난 실력과 그간의 노력들이 엄청났을 것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한겨레21>에 실린 베트남 양민학살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한국인임을 정말 부끄럽게 느끼면서 한편으로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밝히기 힘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베트남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을 보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1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이 결코 지난 과거 한국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현재 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베트남 국민에 대한 사죄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단 한번의 사과로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이기에 이제 우리 할 일을 다했다는 오만을 버리고 지속적인 화해의 몸짓을 보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베트남에 있었던 직접적 가해자는 아니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다시 한번 베트남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이태우

착한 오빠의 짐을 덜어주세요

지난주 <한겨레21>을 읽고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 속의 학살자는 언제나 군부독재였고 미국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이라니...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남의 일이라고, 정치와 경제논리에 의해 끌려간 용병들이었고, 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단지 추악한 본성만이 휩쓸던 전쟁중이었다고, 그런 시대였다고 고개를 돌려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출생의 비밀을 안 것처럼, 마치 추악한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해 가슴이 저려옵니다.

제가 강보에 싸여 있을 때, 누구나 가난했던 그 시절, 우리 큰오빠는 올망졸망한 동생들을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갔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우연히 다락에서 베트남에서 찍은 오빠의 앨범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베트남에 갔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베트남에 갔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의 아들들이었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떠난 효자들이 많았다고 들었으니까요.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들, 그중 청룡부대는 영웅이 되어 돌아왔지요. 오래 전 뉴스자료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들에게 공항에서 꽃다발을 걸어주던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고, 법 한번 어긴 적 없이 살아온 착한 큰오빠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학살의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파병됐다는 것만으로 역사적 책임이 유예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땅의 젊은이들을 그런 생지옥 같은 곳으로 몰아넣은 박정희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기념관을 만들어주다니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주스럽기조차 합니다.

학살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의 아버지, 오빠들은 전쟁광들이 아니라 아마 평범한 청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그때의 일들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참회하는 것만이 베트남전의 악몽을 겪고 있는 그나라 민중과 이 땅의 오빠, 아버지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위한 캠페인에 아주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더불어 고통받고 있는 베트남전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애

어릴 적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모순에 가득 찬 기성세대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문득 아이들 눈에 비칠 어른들의 모습에 이제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제 아이가 보게 될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 아이도 이 땅에 태어난 걸 원망하게 될까요. 미혼이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치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만은 자랑스런 한국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베트남전 양민학살, 성금모금 캠페인' 이 과거 한국의 과오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모습에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함께 하려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참합니다. 먼 훗날 '네게 보여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엄마 아빤 이렇게나마 노력했노라' 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김정운 · 임현아

저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병과 동료 장교들이 파병되는 것을 지켜보며 전역한 예비역 장교입니다.

전쟁의 피할 수 없는 무차별성과 야만적인 환경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내지도 모릅니다. 히틀러를 욕하고 일본인들을 증오하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베트남인들에게 거꾸로 그와 같은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역사를 알고 그걸 교훈삼아 후세에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참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금전적 보상이든, 혹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죄의 형식이든, 진정한 지구촌 이웃으로서 함께 살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1·4후퇴 때 흥남에서 미군들의 철수군함을 타고 피난 내려왔습니다. 그런 저로서는 미군들의 노근리 학살사건에 대해 혼돈과 갈등을 느낍니다. 베트남전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의 젊은이들도 그들과 똑같은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러나 적진 많던 자의든 타의든 피해를 준 입장에서라면 좀더 너그러운 자세가 되어 이제는 사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채명신 장군의 변명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할말은 있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겠지요. 일본인들이 과거 역사에서 한국에 준 피해에 대해 그들이 배풀었던(?) 더 크고 많은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듯이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저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영훈고등학교 3학년 지수희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년간 학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국사책에서의 우리나라는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역사 속의 전쟁은 우리나라가 이민족에 의해 침략당했고, 그것을 우리가 잘 막아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침략했던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영토확장' 이나 '번성' 이라는 단어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을 숨기고 거짓말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도 우리 정부가 작은 것조차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은 이 땅에서 뭘 배워야 하며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아무런 죄없이 죽어갔던 베트남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굴복을 하자는 것도, 우리의 체면을 깎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비는 것도 여유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천년도 시작되었고 베트남 정부에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은 역사를 말하는 데 전혀 부끄러움 없고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약한 사람의 인권, 단 한 사람의 인권조차 존중하는 자랑스러운 나라였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기원합니다.

영훈고등학교 3학년 지수희 올림

-한겨레21 독자편지-

시민이 바라보는 양민학살 그리고 우리가 할 일

## 시민단체

###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 국제민주연대 12월 한달간 '베트남 양민학살' 사죄를 위한 거리캠페인

고경태/한겨레21 기자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채수일 이정옥 신운환)는 12월6일부터 한달간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양민학살' 사죄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벌인다.

매달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캠페인을 진행해온 국제민주연대가 12월에 정한 주제는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가해자로 참여한 베트남전의 한국군 양민학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자는 것이다. 국제민주연대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한국군 양민학살' 실상을 알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엽서쓰기' 운동은 물론 기금을 모금한다. 국제민주연대는 이를 위해 캠페인 장소에 <한겨레21> 273호에 실렸던 피해자들의 대형사진 40여장을 전시했다. 또 <한겨레21>의 캠페인 기사를 복사해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는 각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교회 등과도 연대해 거리캠페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사무국장은 "30년이 지나서야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다. 20세기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한국인의 양심을 모아 사죄의 노력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21 287호-

### '위안부' 할머니들도 동참합니다 - 전쟁의 최대 피해자들 "한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눈감지 말아야"

혜진/나눔의 집 원장

"그럼요. 해결해야죠. (우리 정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



죄를 해야죠.” “우리가 왜 싸우는데요. 피해자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도 일본 정부가 사죄나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지금 일본이 욕먹고 이(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모여사는 나눔의 집에서 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한국인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결국 화제는 베트남전에서의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한국군의 전쟁책임문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순덕 할머니를 비롯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빗대 이 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다. 동병상련일까. 아니면, 경험에서 우러난 역사에 대한 성찰일까!

###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91년 군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의 증언에 의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반응은 어떠했던가? 최근에 와서야 군 ‘위안부’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만큼이나 피해자는 고통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다. 전쟁과 그로 인해 빚어진 비극을 감내해야만 했던 이들을 우리 모두가 사회적 윤리라는 울타리에 묶어 두고 곱지 않은 시각으로 대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 말 못할 고난의 세월을 보낸 탓인지 증언을 한 이후의 할머니들의 삶은 이전과는 또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노구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은 아직도 멀기만 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일관되게 싸우고 있다. 피해자로서의 이러한 눈물겨운 투쟁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당신 스스로 이제 전쟁만은 절대 안 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겪은 고통만큼이나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의 아픔도 결코 시간이 해결해주거나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쟁피해자인 할머니들은 체험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나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전쟁의 가해자로서 일본 정부가 왜 떳떳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까 하는 점이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오늘날의 일본사회는 몇 가지 대답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원폭돔과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을 포함한 수많은 일본의 평화기념관 어디에도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곳은 드물다. 오히려 피해자라는 역사인식만 조장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현실이

다.

이러한 역사인식과 이에 편재된 사회구조 속에서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의 논리는 그 정도를 이미 벗어났고 전쟁에 대한 해석 또한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미화, 왜곡되고 있다. 일본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수우익의 논리 가운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말하자면, “전쟁 시기에는 으레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게 마련이다. 한국도 베트남전쟁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한국 또한 사죄나 배상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에 전쟁책임을 인정하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냐”는 논리도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작업을 회피하기 위한 면죄부로 일본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 그들과 함께 화해와 용서의 실천을

어찌보면 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최대 피해자다. 그런 할머니들이 당신들의 과거를 드러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신념처럼 갖고 있기에, 우리는 이분들의 삶에 비추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가 저질렀던 베트남전쟁에서의 무고한 양민학살과 신라이따이한을 양산해낸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우리 스스로 나서서 참회하고 용서를 빌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실현하려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눔의 집에서도 베트남의 학살된 무고한 양민과 피해자에게 화해와 용서의 실천을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할 계획이다. 전쟁의 희생자인 할머니들도 이 뜻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한겨레21 282호-

### 불벌더위 이긴 눈물의 진료 - 건치 진료단의 베트남 활동현장... 4일 동안 2천명 환자와 강행군

황상철/한겨레21 기자

“일동 묵념.”

진료가 시작되기 전 그들은 목욕을 했다. 34년 전 이곳에 온 한국군들에 의해 무고하게 죽은 베트남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은 머리를 숙였다. 아침 5시. 밖에선 벌써 환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다.

### 답사팀 꾸려 피해자가족 증언도 청취

베트남의 남부지방 호치민에서 다낭까지 비행기로 한 시간. 렌터카를 타고 서쪽으로 다시 두 시간. 쿠앙옹아이성 선탄현 의료센터에서 한국 의사들의 무료진료활동은 매일 그렇게 시작됐다. 이국땅의 오지에서 핸드피스를 잡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치) 소속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베트남 진료단' 회원들. 장비와 시설은 열악했지만 40여명 되는 치과의사들과 치위생사들의 의욕은 불멸더위를 이기고도 남았다.

시설은 정말 초라했다. 5~6평쯤 되는 낡은 시멘트바닥이 칸칸이 네곳. 장비도 마찬가지로였다. 한국에서 가져온 이동용 치과기기 다섯대뿐. 밀려드는 환자들로 잠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기계는 특하면 고장이었다. 냉방시설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 진료가 시작되자마자 30분도 지나지 않아 의사건 환자건 땀범벅이 돼야 했다. 선탄현 당국은 "베트남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씨에스타' 시간에 맞춰 점심 때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다" 고 말했다. 그러나 진료단은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치료하겠다고 우겨 시간을 늘렸다. 3월13일부터 16일까지, 날마다 오전 5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강행군은 이어졌다. 나흘 동안 진료자가 무려 1441명. 치료가 불가능해 돌려보내거나 단순진료를 한 사람을 포함하면 2천명이 넘었다. 하루 평균 500명인 셈인데, 애초 목표는 하루 200명이었다.

이번 진료활동에는 통역을 맡아준 호치민대 동방학부 한국어과 학생들의 도움이 컸다. 4학년생 옹옌쥬 부(24)는 "진료단원들이 최선을 다해 베트남 환자를 돌봤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건치 신동근(40) 회장은 "환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밀려들어 제대로 마취를 기다릴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빨리빨리 치료해야 했다" 며 고충을 토로했다. "진료를 온 목적은 용서를 빌기 위한 것인데, 미흡해 죄송스럽다" 는 겸손의 말도 덧붙였다.

진료현장의 한편에서는 단원들이 교대로 답사팀을 꾸려 한국군 양민학살 희생자가족을 찾아나섰다. 그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맨발로 달려온 옹옌 리(75) 할아버지. "아침에 총소리가 나 사탕수수밭으로 도망가 숨어 있었어. 조용해져서 나와보니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버지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죽어 있었어. 입 안에는 밥이 그대로 들어 있고, 어머니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죽어 있었지. 입 안에는 밥이 그대로 들어 있고... 어머니는 땅굴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었어. 살았는줄 알고 손을 내려보니 얼굴이

피투성이인 채 죽어계신 거야. 땅굴 안의 조카는 한달된 젓먹이한테 젓을 주다 젓먹이와 함께 죽었어. 모두 가족 9명이 죽었던 말이야. 한국군은 보이는 대로 다 죽였어. 저기 바로 앞에 무덤들이 있어. 한번 가서 봐!" 그는 34년 동안 맺힌 한을 울음으로 쏟아냈다. 진료단원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치과의사 임종철(30)씨도 눈물을 흘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실이겠죠. 이 마을이 생긴 이래로 그런 일은 단 하루뿐이었을 텐데."

### "참전군인 찾아온다면 용서할 거야"

폭빈촌 마을 입구에 선 위령비가 34년 만에 찾아온 '따이한'의 후손' 들을 내려다보며 66년 11월 청룡부대의 학살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폭빈 양민학살 유적. 남조선 군인들이 양민 68명을 학살하다." 진료팀은 옹옌 리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한명씩 꼭 껴안고 얼굴을 부본다. 서로의 눈물이 섞였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안내로 묘지를 찾아 무덤들 앞에 향을 피웠다. 옹옌 리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웅얼거렸다. "당시 한국군이 찾아와 사죄하면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죄를 잊을 수는 없어. 당신들이라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치과의사 정창권(38)씨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치료에 대한 욕심이 커졌다" 고 말했다. 애초 치료목표의 두배를 '초과달성'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한겨레21 301호-

## 별첨 1 : 해외 케이크 보고서

#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 — 베트남 보고서

다이앤 & 마이클 존스

“우리는 초기부터 모든 군인들에게 ‘백명의 적군을 놓친다 하더라도 단 한명의 민간인에게라도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이것을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으로 설정해 왔다. 이는 베트남에 주둔하는 모든 한국군에 엄격하게 적용돼 왔으며 사실상 최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소중히 지켜오고 있다.” (이세호 중장, 주월 한국군사령관)

“한국군이 단 한방의 총성을 듣기만해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의 주민 90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남베트남 빈중사의 한 자치위원)

안하이(우리는 정보를 제공해준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1번국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선록사에 살았다. 쿠앙옹아이시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의 집 가까이에 주둔했던 유일한 동맹군은 누이존(존산)이라는 작은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100명의 남베트남 군대(ARVN)와 약간명의 한국군 고문관들이었다. 안하이는 자기 마을은 민족해방전선(NLF)에 세금을 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병력이란 몇명의 지역 게릴라로 출몰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었고 말했다. 안하이는 우리에게 한국 해병부대인 청룡부대가 그의 마을에 들어와 별인 작전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1966년 11월9일, 내가 15살이었을 때였다. 난 우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엔니엔촌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가 있었다. 우리는 많은 인원의 군대가 걸어서 행진해오고 있는 것을 봤다. 우리는 그들이 베트남 군대인줄 알고 계속 놀았다. 군대가 가까이 오자 아직 논으로 일을 나가지 않았던 남자들은 숨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베트남 군인들이나 미국군들은 우리 마을에 왔었지만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이 한국군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숨으려고 했었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은 때였다.”

“군인들은 마을에 들어와 동네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베트남 말이란 겨우 ‘디,디’ (가,가)라는 말이 전부였다. 그들은 통역관을

데리고 있지 않았다. 군인들은 나이는 남자들과 소년들을 군중들 가운데서 끌어내 한쪽으로 줄을 서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명령했다. 군인들은 줄 제일 끝에 있던 13살짜리 남자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한국말로 몇가지 질문을 했다. 물론 그 아이나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들이 하는 한국말을 알아 들을 수 없었다. 아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군인들은 아이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총을 쏘았다. 그리고 구멍이여다 던져버렸다.”

“그리고 두번째 남자아이를 지명하고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심하게 구타했다. ‘너 영어할 줄 알아?’ 그때 내가 입을 열었다. 난 학교에서 영어를 조금 배웠다. 베트남-한국어 사전의 도움과 짧은 영어실력으로 그들이 내게 물었던 질문에 대답했다. 내 이름과 나이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는 대답했지만 베트남 작전지도부의 위치를 물었을 때는 모른다고 하니 총구를 내 목구멍에다 겨누었다.”

“바로 그때, 누이존에 있던 대장이 한국군 고문관과 함께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난 죽었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지엔니엔에 있는 사람들은 베트남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베트남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해줬다. 그러자 한국군은 마을을 떠났다. 그들은 안터촌으로 방향을 잡고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몇번의 총성을 듣고서 아마 한국군이 게릴라들과 접전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 접전이 한국군을 화나게 한 게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안터에서 그들은 7명의 아이와 1명의 노인을 지하 병커로 몰아넣은 다음 수류탄을 던져 넣었던 것이다. 5명은 죽었고, 3명이 다행히 살아남아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그날 오후 지엔니엔의 사람들은 한국군이 작전을 마칠 때까지 머무르려고 누이존으로 피난갔다. 하지만 50명 넘게, 아마 100명 가까이 되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대로 마을에 있었다. 저녁 무렵 한국군이 안터에서 다시 돌아와 이 사람들을 모았다. 한국군은 아이들에게 과자와 사탕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그들을 모두 살해했다. 한국군들은 시체를 그대로 쌓아둔채 마을을 떠났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사탕을 나눠준 것을 알게된 것은 이를 뒤 언덕에서 내려간 남자들이 죽은 아이들의 입과 손에 사탕이 물려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1972년 3월이었다. 베트남에 간 지 1년 반이 됐을 무렵이다. 한동안 우리는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한 보고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안하이의 얘기를 들은 뒤 우리는 좀더 조사를하기로 결정했다. 1972년 5~8월 사이 우리는 40차례의 인터뷰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쿠앙남, 쿠앙틴, 쿠앙옹아이, 빈딘성의 작은 마을이나 피난민 캠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한두 명과 인터뷰를 했지만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설명과 보충얘기가 덧붙여졌다. 9차례의 인터뷰는 쿠앙남의 피난민 캠프에서 이루어졌는데 같은 마을에서

은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증언을 해줬다.

우리는 쿠앙남, 쿠앙틴, 쿠앙옹아이성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1966년 중반부터 1971년까지 청룡부대가 작전을 수행했던 곳이다. 빈딘에는 가끔 들렀는데 그곳에 주둔했던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둘 모두 베트남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인터뷰 내내 우리는 통역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다행히 우리는 종교지도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도움 덕분에 많은 시골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드러내 놓고 외국인과의 얘기를 꺼려한 그들의 말문을 열게 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이나 동네의 주민들이었다. 몇몇 다른 경우, 우리에게 정보를 준 사람들에 따르면 사건을 목격 한 사람들의 진술이기도 하다. 종종 그들은 그 학살의 현장에서 다행히 도망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정부와도 관계가 없으며 다만 그들의 얘기를 보도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기꺼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록 우리가 인터뷰 하기 3~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사이공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와 얘기하는 것을 피했다. 몇해 동안 베트남 사람들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해온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얘기를 추적하는데 우리가 맞닥뜨린 또 다른 어려움은 공교롭게도 한국군이 '평정한' 지역 가운데 많은 곳이 다시 1972년 여름께 '위협지역' 이 됐다는 사실이다. 쿠앙옹아이, 쿠앙틴 그리고 빈딘성은 우리가 들었던 대학살이 일어났던 지역인데도 방문하기에 불가능한 곳이 됐다. 이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은 도시에 나와 살거나 1번도로를 따라 있는 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피난민들한테서 들은 것이다. 쿠앙남에서 우리는 사이공 정부가 '귀향마을'로 정해 많은 피난민들을 한 곳으로 정착시킨 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 한국 해병이 작전을 수행한 이 지역의 다른 곳은 위험지역이어서 방문할 수 없었다.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역적인 문제와 같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조사를 벌이는데 상당한 제한이 됐다. 제한된 지역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들을 수 있었던 사실이 나타내는 것은 아마도 더 많은 학살사건이 한국군에 의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밖에서는 모르는 채로 남아있다.

자료를 모으려 애쓰면서 다행스러웠던 점은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학살이 이루어졌던 날짜를 음력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족 가운데 죽은 사람을 위해 매년 제사를 드리는 베트남 전통 때문이었다. 친척 가운데 죽은 사람이 없을 경우 대강 어느해 몇월이라거나 어떤 시간이었는가를 대답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나 달을 기억하는 사람조차도 가끔 몇년도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종종 대학살이나 잔학행위들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전혀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세한 사건들이란 결국 우리가 만나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가져다 준 대량파괴나 피해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 가해진 폭격이나 공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대학살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에게는 잔혹하고 믿을 수 없을만한 사건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히 주목할 이유가 아닌 것이었다. 아니면 베트남 농촌지역민들한테는 너무나 오랫동안 '일상적인 일'로 되어온 것이었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

농촌지역 주민들로부터 사건을 들은 뒤 우리는 미국군과 한국군 군사 정보기관에 한국군들의 작전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어느쪽도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당국이 한국군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해 간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다. 쿠앙남성의 성도인 호이안에 있는 미국 고문관의 본부에 쿠앙남에서의 한국군 만행을 다룬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들었다. 베트남에 있었던 한 미국 외교관은 이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으며 미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런 보고와 다른 미국 동맹군이 저지른 잔학행위를 무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다음 이야기들을 하려는 목적은 어떤 사건이 언제 정확히 일어났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제공하려는 게 아니다. 어떤 날짜들은 틀렸을 수도 있고 어떤 자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얘기들에 대한 독립된 정보와 그 숫자들은 베트남에서 한국군들이 어떻게 이용됐는가에 대한 신빙성있는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베트남 농민들이 우리에게 해준 얘기들이다. 그들이 직접 겪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겪은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이 수행한 '평정'에 대한 얘기이다.

### 쿠앙옹아이성, 선면현

안하이엔 지엔니엔 주민들을 학살한 한국군 부대의 작전은 약 2주간에 걸쳐 서부 선면현의 여러 마을을 망라했다고 말했다. 선록사 폭빈촌에서 온 바하이라는 늙은 여인은 한국군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들이 처음 폭빈에 온 것은 1966년 11월9일 아침 7시께였다(한국군이 지엔니엔에 나타나기 3일 전이었다). 그들은 2일을 머물렀지만 사람들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그들은 돈을 주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의 가축을 잡아 먹었다. 그들이 있는

동안 게릴라들과의 교전도 없었고 지뢰를 밟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11월11일 아침 한국군들은 동네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불러냈고, 외국말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통역관은 없었다. 남자들은 이미 누이존에 있는 피신처로 달아나고 없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만 남아 있었다. 군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내게 뭐라고 말하였지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VC' (베트콩)이라는 말뿐이었다. 내가 고개를 가로 저었더니 그들은 나를 놔 주었다. 난 아이들을 불러 힘 닿는대로 집을 챙겨 누이존으로 달아났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VC'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한국군들이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 그들은 그저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만 했다." 바하이는 두손을 앞으로 모아 손뼉을 치면서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자신들의 집 앞에서 총에 맞아죽거나 안으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받고 수류탄에 맞아 죽었다. 집은 모두 불태워졌다. 내 생각에 한국군들은 사람들이 공손하게 절하는 것을 자신들이 베트콩이거나 베트콩 동조자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죽인거다. 마을 전체를 통털어 겨우 20~30명의 사람들만이 나와 우리 아이들처럼 도망나올 수 있었다."

"한국군들이 떠나고 7,8일 지나서야 남자들이 누이존에서 돌아와 보니 약 140구의 시체가 있었다. 대부분의 죽은 아이들의 손과 입에 사탕이 쥐어져 있었는데 한국군들이 나눠준 것이었다."

우리는 선면 서부 지역에서 한국군들이 저지른 다른 학살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그러나 너무 많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주민들은 선남, 선박, 선검, 선짜우, 선짜, 선중, 선동 그리고 지엔니엔과 폭빈촌이 있는 선록사에서 한국군들이 20~100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죽은 이들의 숫자는 매건마다 평균 50명은 넘었다. 다음 두 건의 학살은 모두 1966년 말에 일어난 사건으로 지엔니엔과 폭빈에서 학살을 저지른 것과 같은 작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쿠앙응아이성 병원에 있었던 환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한국군이 선동사의 안빈과 동년촌을 돌며 가가호호 집을 수색해 46명을 죽였다고 했다. 희생자들 가운데 6명은 작은 까오다이 사원에서 발견됐는데 두손이 등 뒤로 묶인채였다. 당시 안빈에서 살았던 환자는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할 때 누이존 정부의 막사로 피난해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 뒤에 그녀가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많은 주검들이 있었고 집들은 불탔다.

우리는 쿠앙응아이성 가까이 있는 피난민 캠프에서 그룹을 이루고 있는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많은 다른 사건들 가운데 1966년 12월 한국군들이 선록과 선짜우사에서 200명의 주민들을 모아서 선록 동쪽지역 외딴곳으로 끌고가서 모두

죽였다고 했다. 그날 한국군들은 게릴라들과 어떤 교전도 벌이지 않았다고 그들은 말했다.

이 그룹의 한 남자는 1966년말에 있었던 특히 잔인한 한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얘기했다. 한국군들은 5명의 아이들의 목을 잘라 1번도로 15km까지 들고 다니다가 당시 한국군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주민들이 피신해 있었던 안전지역에다 내버렸다고 했다. 한국군들이 목을 전리품처럼 들고 다닌 이유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였다고 그는 말했다.

### 쿠앙응아이성, 빈선현, 빈끼사

선면현에서 대이동이 있던 몇주 후 청룡부대는 북쪽으로 가서 빈선현 1번도로를 가로질러 빈끼와 빈티엔사의 위험지역에 대한 작전을 시작하였다. 빈끼에서 온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조사과정중 우리가 알게된 것 가운데 가장 대규모의 양민학살이 단 하루만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쿠앙응아이성 병원에 있었던 안사우(35살)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1966년 12월6일 이른 아침이었다. 빈리엔촌과 고롱 초소에 있던 한국군들이 빈끼의 롱빈촌으로 내려왔다. 새벽 4시쯤이었고, 사람들이 아직 아침 식사를 하기전이었다. 군인들이 30명의 사람들을 모았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이었다. 안사우와 젊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군인들이 있으면 언제나 그랬듯이 집을 떠나 피해있었다. 군인들은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찾아내 모두 불속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은 30명의 사람들을 모두 언덕 꼭대기로 끌고가서 폭탄구멍이 끝에 서게 하였다. 그리고 군인들은 멀찍이 떨어져 대형 기관총과 박격포를 설치했다. 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자 어떤 시신은 구멍이 아래로 떨어졌고 다른 시신들은 나중에 밀어 내려뜨려졌다. 안사우는 그 총성을 새벽 6시께에 들었다. 한국군들이 롱빈을 떠나 양민학살과 방화를 계속하면서 다른 마을로 향했다. 안사우와 함께 피신해 있었던 다른 남자들이 3일뒤에 롱빈에 돌아왔을 때 폭탄구멍의 시신들은 이미 썩기 시작해 끌어낼 수도 없을 정도였다. 먼지에 뒤 덮인채 그대로 그 자리에 버려져 있었다.

안남은 현재 쿠앙응아이성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같은날 한국군들이 역시 빈끼사의 자신이 사는 안폭촌으로 들어왔을 때 들에 나가 있었다. 군인들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젊은 남자들은 모두 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만이 집에 남아 있었다. 군인들은 집 가까이 있는 한 논안에 모두를 서게 한 다음 3대의 기관총과 1대의 박격포를 설치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발사했다. 안남의 조카인 여덟살짜리 남자아이만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 아이는 시체더미 사이에 떨어져 다치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긴 했지만 목숨은 구할수 있었다. 양민학살 이후 얼마지 않아 한국군들은 국도 가까이 있던 캠프로 철수하고 안쪽을 포격해 뼈대만 남겼다.

안남은 오전 9시께 기관총소리를 들었고 집이 불타오르는 연기를 목격했다. 하지만 감히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후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돌아갈 수 있었다. 그가 돌아가서 본 것은 한 무더기로 된 140구의 시신더미였다. 그 부락의 다른 곳에서 약 30구의 주검이 쌓인 더미를 2개나 더 발견했다. 한국군들은 안쪽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가면서 학살과 방화를 계속하였다. 안남은 우리가 인터뷰했던 빈끼에서 온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학살이 있었던 당시 그 마을에는 게릴라 전투원들이 없었다고 했다.

빈끼사 안에 있던 다른 부락인 락선촌에서 온 피난민들은 우리에게 1966년 9월과 10월중 한국군들은 학살을 자행하기전 여러차례 그 마을을 왔었다고 말했다. 그전에는 한국군들은 주민들을 해치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특별히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다.

12월6일 아침 몇 그룹의 한국군인들이 쩌우레언덕에 있는 초소에서부터 락선(또한 폭선으로도 알려져 있다)으로 행진해 왔다. 오전 10시께 군인들은 주민들을 한군데로 모으기 시작했다. 피난민중의 한 사람인 안베이(30살)는 숲덤불 사이에 숨어서 한국군들이 락선촌안의 일부분인 쩌우마을의 주민 대부분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을 지켜보았다. 안베이는 당시를 회상하며 얘기를 하는 동안 난민촌의 집안에 놓인 나무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6년전 그가 목격한 장면에 대한 공포가 역력히 서려 있었다.

“군인들이 주민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 다음 아이들에게는 캔디를 나눠주고 어른들에게는 담배를 들었다. 난 군인들이 여자들만을 따로 모아 한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여자들이 자기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두손을 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냥 썩버렸다. 그리고 군인들은 총구를 나머지 모인 사람들, 대부분 여자들이나 아이들, 노인들이 있는 쪽으로 돌리더니 역시 모두 쏘아 죽였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은 시신들을 모두 날려 버리려고 시체더미 중간에 지뢰를 설치했다. 그들은 지뢰를 연달아 설치했다. 그러다가 결국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시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오쯤, 한국군인들이 떠나간후 난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시신들을 살펴보러 갔다. 난 캔디와 담배를 물고 죽은 시신들을 보았다. 그리고 안쪽 마을로 걸어가 한 노파를 만났다. 그 노파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을 한 가운데 있는 논을 가리켰다. 시신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시신더미가 있었다. 난 안쪽과 쩌우마을의 시신들을 매장하는 것을 도왔다.”

안베이는 빈끼에서 그날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1천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겨우에 모여 있었던 주민들이 450명 정도였고 안쪽의 2개 시신더미는 각각 약 350구와 150구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한국군은 같은 날 제3의 곳, 역시 락선촌 안의 편안마을에서 100~150명 정도의 주민들을 죽였다고 했다. 이 학살에서 안베이가 추정한 희생자들의 총숫자는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것 중 최고치였다. 다른 사람들은 600~700명 정도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400명 정도라고 하기도 했다.

쿠앙옹아이시에서 일하는 한 사회사업가가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이다. 그는 1970년 홍수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빈끼를 방문했다가 대학살에 관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했다. 그는 1966년 12월 6일 청룡부대에 의해 사살된 안쪽과 락선 주민들 718명의 명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 명단은 살아남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서 들은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서명 날인을 하고 지문까지 찍었다. 이 명단은 그 지방 공무원들의 서명까지 받아 봉인됐다. 이 사건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는 ‘사이공학생협회’의 한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내 그 명단은 사라져 버렸다.

안베이와 다른 사람들은 그 사회사업가 명단의 718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다고 말했다. 락선과 안쪽촌 주민들만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가까이 있는 촌락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국군들의 작전을 피하기 위해 이 마을들로 피신해 있었다. 특히 쩌우마을에서처럼 이들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 빈티엔사

바다를 면해 빈끼와 이웃해 있는 곳이 빈티엔사이다. 2명의 나이 든 불교 신자 대표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는 다음과 같다. 한국군들이 빈티엔 안의 안꽁촌으로 온 것은 빈끼마을에서 양민을 학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자 이웃에 있는 안전한 지역이나, 빈티엔 안의 사이공 통제 하 지역인 반퐁촌으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계지역에 있던 미군군들에 의해 다시 되돌아 와야만 했다. 2명의 노인은 특히 강조하기를 그날 한국군은 누구와도 교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군과 게릴라 전사들간의 전투나 민족해방전선의 지뢰도 없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한국군인들은 안꽁에 다다르자 60명의 주민들을 모아서 그들 모두를 사살해버렸다. 이 2명의 노인들은 용케 반퐁으로 달아날 수 있었지만 이 학살로 여러명의 아주 가까운 친척을 잃어버렸다.

빈득사

청룡부대에 의한 대학살의 또다른 목격자는 빈끼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인 바탕 칸 반도에 있는 빈득사에서 온 사람이다. 그는 빈득사의 푸꾸이촌의 안투(23살).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내가 한국군을 처음으로 본 것은 1966년 11월께였다. 그들이 우리 부락 푸꾸이로 왔을 때였다. 그들은 청룡부대에 소속이었고 군복에는 용이 그려진 표식을 달고 있었다. 그들은 찾아낸 주민들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몇시간 동안이나 동네안에 있는 학교 안에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분유와 미국산 쌀을 나눠주더니 ‘베트콩 혐의’가 있는 몇몇만 제외하고는 모두 가라고 했다. 그 당시 우리에게 먹은 양식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들로부터 배급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몇 주후, 우리는 한국군들이 빈끼에서 수백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후 우리는 한국군들을 증오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게릴라 전사들도 한국군들을 극도로 증오해 다음과 같이 적힌 천을 달고 다녔다.”

‘청룡부대원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라’ ‘호랑이의 시체를 갈라 놓아라’ (쿠앙 용아이성 남쪽의 빈딩성에서 작전을 한 맹호부대를 일컫는다)

“넉달 뒤, 1967년 3월24일 한국군은 빈득에서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다. 첫날, 부대는 오지 않았지만 네이팜탄을 포함하여 대포와 폭탄이 하루종일 터졌다. 우리 모두 튼튼한 지하대피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다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둘째날 아침, 3월25일, 포격과 폭격이 계속됐다. 그게 끝나자 한국군을 가득 태운 헬리콥터가 푸꾸이 마을에 내렸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찾아다녔다. 놀라서 우는 아이들 때문에 위장된 대피소가 발각됐다. 군인들은 대피소를 발견하는대로 최루탄을 던져 넣어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나는 벙커 속에 웅크린 채 숨어서 밖의 베트남 통역관이 잡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통역관은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다. 한국군들은 도와주려고 왔다고 했다. 그날 잡힌 사람들 20 혹은 30명은 모두 잠시 후 풀려났는데 다친 이들도 없었다.”

“다음날, 3월 26일, 한국군들이 다시 왔다. 우리 가족들은 다시 벙커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약 100명의 주민들은 하루종일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며 지상에 그대로 있었다. 전날로 미루어 보아 주민들은 한국군들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청룡부대원들은 마을로 들어서면서 집집마다 뒤져 사람들을 찾아내 보이는대로 죽이고 집에다 불을 질렀다. 벙커에 숨지 않았던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겨우 몇 명이 한국군에 들키지 않고 숨을 수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난 숨어있던 벙커 틈새로 한국군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난 주민들이 베트남 통역관에게 제발 군인들에게 자기들을 죽이지 말게 하라

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국군들은 주민 모두를 ‘베트콩’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가족들도 ‘베트콩’이라며 죽였다. 소 500마리와 많은 숫자의 닭과 돼지들을 보이는 족족 모두 죽였다.”

“우리는 그날 내내 벙커 안에 남아 있었다. 밤이 되어 밖으로 나왔지만 감히 시신을 묻으려고 할 수 없었다. 한국군들은 100m밖에 캠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빛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한국군들은 다시 왔다. 그러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하루종일 벙커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있었다.”

“다음날 다시 한국군들이 걸어서 동네로 들어왔다. 시신들이 썩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감히 묻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벙커아래에서는 냄새가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지상에서는 엄청났다. 군인들은 방독면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겨우 한시간 정도 머물렀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날 군인들은 그 지역을 떠나 자신들의 베이스캠프로 돌아갔다.”

“한국군들이 돌아간 다음날 200~300명의 민족해방전선 군인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묻는 것을 도와주었다.”

빈득사의 다른 2가지 이야기는 1967년 3월 푸꾸이에서의 학살이 있기 여러달 전에 찌우빈과 찌우탄촌에서 각각 5명과 51명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2명의 여자들이 각각 다른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에는 청룡부대가 1967년 마지막 4개월동안 빈득사에 있는 한 초소에다가 지뢰를 심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당한 무차별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가족들은 도살되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살해됐다. 죽은 시신들은 우물아래로 던져졌다. 그중의 한 여자는 당시 한국인들이 살해한 빈득사 양민들의 숫자가 15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빈안사

두 여인에 따르면 빈안사 근처는 15명 넘게 살해된, 적어도 2건의 학살이 있었던 장소이다. 이 사람들은 아린 산이 있는 푸니에우촌 출신으로 그곳은 한국부대가 1966년에서 1967년에 걸쳐 몇 달간 주둔한 곳이다. 한국군들은 자주 작전수행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그들이 올 때마다 주민들은 멀리 피신했다. 가끔 한 번에 15일간이나 긴 작전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말하기를, 한 번은 한국군들이 눈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계속 수색을 하여 다른 사람들도 찾아냈다. 군인들은 모두 35명을 찾아내 그들 모두 총살했다. 다른 한 번은 한국군이 가족들이 피난하면서 두고간 바구니에 담긴 잣난아기를 발견했다. 엄마는 죽었고 다른 친척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로 자신들이 숨어있

는 장소가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버리고 갔다. 가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갓난 아기는 배가 갈라진 채 죽어 있었다.

그중 한여인은 이런 사건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비록 생명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푸니에우는 그들의 유일한 집이고 논문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곳에 살면서 벼를 추수해야만 했다. 그리고 만약 집을 떠나면 뭘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고 그녀는 반문했다.

### 쿠앙남성, 디엔반현

청룡부대는 1967년 12월 쿠앙옹아이 북쪽에서 쿠앙남 남쪽으로 이동했다. 한국군들이 쿠앙옹아이에서 얻은 것과 비슷한 명성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한 때였다.

1968년 2월12일 구정 휴일이 있는지 2주 후 한국해병대는 디엔반현, 탄풍사, 풍니촌에서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 우리가 얘기 들은 다른 학살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적어도 쿠앙남에서는 매우 널리 알려졌다. 서구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할 정도였다. 1972년 2월13일 <뉴욕 타임즈> 기사는 미 국방성과 해병대 관리자는 이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한국군 사령관에게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병대의 대변인은 한국군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1972년 6월, 우리는 풍니촌에서 온 소규모의 피난민 가운데 여덟명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들려주었다.

일단의 한국군 병사들이 1번도로에서 매일 있는 도로 정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풍니에서 불과 얼마 안된 거리에서 경찰부대는 대인 지뢰에 걸렸다. 부락민들은 지뢰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런 총성도 없었고 그 지역에서 교전이 이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 폭발이 있은후 얼마안돼 군인들이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 풍니촌으로 들어왔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불러모으고 인접한 들로 데려가 총살했다. 군인들은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쏘 죽였다. 그리고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다.

그 학살을 우리에게 설명해준 8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시신들을 매장장소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손자도 있었다고 했다. 다른 한 사람은 주름이 가득진 얼굴의 노파였는데 그녀는 그 사건으로 2명의 딸과 4명의 손자를 잃었다고 했다.

우리가 사이공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그 학살이 있은 후 1,2일 후 풍니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호이안에서 풍니쪽으로 갔다고 했다. 그는 어린아이가 발가벗긴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시신은 말그대로 사람들이 양쪽 다리를 잡아당겨 찢

어져 있었다고 했다.

가까운 절에서 온 한 비구니 스님은 우리에게 시신들 가운데 어떤 것은 어린 아이까지 칼로 창자를 끌어낸 채 죽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우리 작은 절안에는 그들 모두를 위해 향을 피울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풍니촌은 국도에서 가까웠고 당시 사이공 정부에서는 안전지역으로 판정한 지역이었다. 그 희생자들 가운데에는 남베트남 군인들의 아내와 아이들도 포함돼 있었다. 생존자들은 전면적인 조사와 정부가 자신들의 편에서 개입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어떤 주목할만한 결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 노파는 6명의 가족이 죽은 보상으로 한 사람당 20kg의 쌀과 2m의 상복을 만들 천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시간과 ‘안전’의 한계로 풍니 말고는 디엔반에 있는 다른 부락들을 찾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청룡부대가 디엔반현에서 특히 그들이 주둔하기 시작한 첫해 동안에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주었다는 여러 보고를 접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쿠앙남에서 온 한 젊은 여인은 자신이 생존자와 민족해방전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돈보보 미군초소 가까이 있는 디엔홍사에에서 400명의 주민이 학살당했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1968년말, 그 지역에서 한국군이 첫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군인들은 거의 450명의 주민들을 —군인들 또래의 남자들은 거의 없었다— 모아서 겨우 도망칠 수 있었던 45명을 제외하고 모두 총으로 쏘 죽였다. 그 뒤 미국군이 너무나 많은 양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한국군을 디엔홍에서 철수시켰다는 루머가 돌았다고 그 여자는 말했다.

### 쿠앙남성, 유이쑤엔현, 쑤엔쩌우사

쿠앙남 남동쪽의 유이쑤엔현은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거의 죽임을 당했거나 피난민이 되었다. 한국의 청룡부대는 1968년초에서 1971년 말까지 유이쑤엔에서 작전을 폈다. 1972년 6월 우리가 1번도로에서 쑤엔쩌우사로 모터스쿠터를 타고 돌아올 때 운전사가 한 농촌지역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 땅이 모두 한 때는 대나무와 과실수가 늘어서 있었던 비옥한 들이었지요. 그리고 타일 지붕 이층집들이 여기저기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본 것은 제대로 손보지 않아 막자란 잡초더미와 울퉁불퉁한 텅빈 땅이었다.

폭탄과 대포와 화염과 군사작전으로 주민들은 모두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 기사는 말했다. 한국병사들은 유이쑤엔현을 불도저로 아예 평평하게 밀어버렸다고 했다. 동쪽으로 수km를 한국군 불도저가 수백년간 해안의 모래 언덕에서 파서 만든 모래 눈을 모두 깊숙히 묻어버렸다. 마을의 집들은 폭격과 포격으로 모두 부서져 버렸다.



유이쑤엔에서는 집과 땅만이 파괴된 것이 아니었다. 쿠앙남성 절의 한 주지스님은 1965년전에는 그 지역에 50개의 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겨우 5개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누가 그것을 파괴했냐고 물었다. “베트콩들은 폭탄이나 불도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평평한 들과 몇 개의 새로생긴 비석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전에는 저기에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4600개가 있었지요.” 그들중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한국군들이 그걸 모두 파괴치고 그위에다가 초소를 지었죠. 군인들은 벙커를 발견하면 뒤집어서 죽은이들의 뼈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 전쟁에서는 죽임을 당하고서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거죠.”

우리가 쑤엔쑤우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절에서 이틀간에 걸쳐 죽은이들의 원혼을 달래는 식을 올리고 있었다. 수백개의 종이끈들이 제단 둘레에 있는 여러개의 탁자위에 걸쳐져 있었다. 종이마다 한사람씩의 이름과 죽은 날짜가 써여져 있었다. 승려 가운데 한사람이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더니 “미국군과 한국군에 의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다.

나중에 우리는 다른 절에서 온 일단의 나이든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 그들에게 한국군들이 그들의 마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1968년 2월29일 한국군들이 쑤엔파이촌에서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인 40명의 양민을 학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한 노인은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하나 앞으로 나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주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쏟아지는 포화를 피해 벙커안에 숨어 있었다. 한국군들이 마을에 들어와 수류탄을 주민들의 벙커 안에 던져 넣었다. 벙커 안에서 수류탄이 터져 여동생과 2명의 조카가 죽었지만 한 여자가 살아남았다. 다른 여자의 친척 7명과 부모와 7명의 아이들이 그 벙커안에서 죽었다. 한 젊은 남자가 자신의 삼촌과 다른 2명의 사람이 총에 맞아죽었으며 그들의 시신은 우물 안으로 던져졌다고 말했다. 9건의 그런 사건으로 33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 뒤 몇몇 노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희생자들의 숫자를 더한 후 그날 사건으로 쑤엔파이에서 죽은 숫자는 앞서 말한 40여명이 아니라 62명이라고 확신했다.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이 몇번을 되풀이하어 그날 혹은 다른 날에도 쑤엔파이에서는 어떤 교전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그 동네가 사이공 정부로부터 안전지역으로 평가된 곳이라고 말했다.

앞서 말한 사건은 쑤엔파이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었지만 한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살해와 강도, 강간 등 많은 사건들이 산발적으로 있어왔다고 했다. 쑤엔파이의 농부들은 들로 일하러 나갈 때에도 많은 묶의 돈을 지니고 다녔다고 했다. 허술한 집에 두기가 마음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노인들은 한국군인들이 그 남자들을 죽이고 상당한 돈을 모두 강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역시 덧붙이기를 한국군들이 가까이서 주둔하는 동안 18명의 여자들이 다른

시간에 집이나 들판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아마 강간당한 다음 죽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짐작했다.

한 남자가 감정이 북받힌 채 1969년 3월15일에 대해 얘기했다. 그날 그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한국군이 가까이오고 있었다. 그와 그의 아이들은 얼른 숨고 그의 아내는 집을 지키기 위해 뒤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 군인들이 떠나간 뒤 그와 아이들이 돌아왔을때 아내는 눈이 가리운채 강간당한 뒤 벙커 안으로 던져져 수류탄에 맞아 숨져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말하기를 쑤엔쑤우의 다른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건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1968년 1월29일과 같은 경우 2명의 노인과 2명의 아이들이 도로에서 300m 떨어진 자기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몇 명의 한국군들이 “여자를 찾아” 길에서 내려왔다. 군인들은 이 네명의 사람들을 발견하는 즉시 쏘죽였다.

이런 사건들은 한국군들이 쑤엔쑤우에서 주둔한 처음 일년 반 동안 흔히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다. 그러나 1969년부터는 그들이 캠프 안에서 주둔해 작전 횡수가 적어지면서 점차 이런 사건은 줄어들었다. 사실 쿠앙남성의 책임자인 레 트리틴 대령이 1970년 초에 <AP통신> 기자인 마이클 푸첼에게 말하기를 한국군들이 너무 자주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부대가 전투 임무에서 물러났으며 이 때문에 한국군들이 비전투 베트남인들과 부딪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룡부대가 유이쑤엔지역 (그리고 베트남)을 막 떠나기 직전, 군인중 한명이 쑤엔쑤우촌에 와서 서류를 내밀며 동맹군인 한국군인들이 지역민들을 위해 해주었던 좋았던 점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절안에 있던 노인들은 자기들중 아무도,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중 누구도 그 서류에 뭘 적어 넣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 쑤엔히엡사

다른 ‘안전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군이 왔던 당시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청룡부대중 제5중대는 쑤엔쑤우 서쪽에 있는 쑤엔히엡사의 끼에우선촌 가까이 낮은 지대에 초소를 지었다. 1968년 10월19일 홍수가 나자 한국군들이 이동해 들어와 끼에우선의 작은 절을 차지해 버렸다. 첫날 밤은 그냥 지나갔지만 둘째날 밤 10시나 11시께 게릴라들이 작은 로켓탄으로 절을 공격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군들이 밤새도록 바깥쪽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했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다음날 아침 군인들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향해 행동을 취했다. 군인들은 절을 마주하고 있는 집의 노인 부부를 죽이고 집을 불태웠다. 절 근처에 있는 모든

집들은 불태워졌다. 주민들은 자기집에서나 아니면 도망치다가 죽은 사람들 12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우리에게 건네줬다. 12명 이외에도 일가족 10명이 병커안으로 들어온 수류탄으로 죽었다. 오전 내내 한국군들은 끼에우선촌에서 찾아낸 주민들 약 200~300명을 모두 모아서 습지로 데리고 가서 물안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였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주민들 모두 자기들이 곧 총살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베트남-한국통역관과 다른 베트남 군인들, 지방공무원이 제시간에 끼어들어 그들 모두 풀려날 수 있었다고 했다.

끼에우선 사건은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군 작전의 희생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아주 드문 경우 가운데 하나였다. 사이공 정부는 생존가족들에게 희생된 어른 1명당 4천 피아스트레스(약 20달러)를 주었고, 어린이 1명당 2천 피아스트레스를 줬다.

### 쑤옌중사

1968년 6중대의 청룡부대원들은 구정공세 동안 끼에우선에서 북서쪽으로 수km 떨어진 쑤옌중사에 있는 홍방 언덕 초소에서 작전중이었다. 한국군들이 그곳에 주둔하는 동안 산발적인 여러 사건으로 약 300명의 주민들을 죽였다고 마을사람들이 말했다. 쑤옌중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한 노인에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첫째, 미군 폭탄과 포탄—이것으로 400명의 주민이 죽었다. 그리고 둘째가 한국군”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민족해방전선은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니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동옌촌은 쑤옌중사에서 한국군들이 가장 대규모로 최고조의 잔혹성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다. 6명의 주민들이 1968년 6월8일 자신들의 친지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날 한국군에 대한 공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설사 그 지역에 게릴라 전투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숨거나 멀리 달아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전수행을 위해 마을로 들어온 군인들은 36명의 주민을 사살하고 대부분의 집들을 불태웠다. 이 지역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2명의 어린 남자 아이들이었다. 두 아이는 군인들이 병커 안으로 수류탄을 던졌을 때 S자 형의 병커 반대 끝쪽에 숨어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죽었다.

다른 사람들이 동옌촌과 가까이 있는 점선촌에서 다른 날에 있었던 여러 개의 산발적인 사건들을 얘기해 주었다. 점선에서는 청룡부대원들이 주민들의 목을 잘라 머리를 장대에 꽂아 땅에 박아두었다고 한다. 우리가 나중에 이 일에 대해 쿠앙남에서 온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는 “아, 그건 아주 흔한 일이었지요. 그건 한국군들의 장기였지요”라고 대답했다.

### 쑤옌면, 쑤옌타이사

유이쑤옌현에서 한국군이 가장 최초로 저지른 양민학살은 우리가 듣기로는 1번도로의 동쪽인 쑤옌면과 쑤옌타이사에서 일어난 것이다. 1968년 1월19일 그 유명한 구정 휴일 바로 열흘 전에 한국군들은 처음으로 쑤옌면사로 들어왔다. 바오반꾸엇이라는 연못 가까이에서 한국군들은 거의 모두 여자들과 아이들인 48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줄로 서게한 다음 사살했다. 여러 사람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이 있는 후 마을사람들은 모두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의 가장 번성했던 4개의 부락은 길을 따라 있는 몇채의 오두막만 남은채 쇠락해 버렸다. 쑤옌면에 있었던 남자들은 한국군들이 이 지역을 점령할 초기에 가장 흉폭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군인들은 모두들 자기들을 무서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다.” 군인들은 그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1번도로에서 조금 빗겨나 1km 떨어진 ‘귀향마을’ 쑤옌타이는 조용하고 외딴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국군의 작전을 직접 겪은 몇 명의 노인들을 만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1968년 구정 바로 전에 한국군들이 쑤옌타이의 쑤에우쨌우촌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작전 첫날 6명의 아이와 3명의 노인, 11명의 여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공동묘지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을 그날 죽이고 나머지는 다음날 죽였다. 우리는 그 20명의 명단을 볼 수 있었다. 쑤에우쨌우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레쿠앙의 가족들 7명이 모두 한국군이 그들의 병커안으로 퍼부은 수류탄과 박격포로 죽였다고 그들이 증언했다.

그리고 구정 첫날, 13명의 여자들과 여러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22명의 사람들이 역시 쑤옌타이의 일부 지역인 하뉴언촌에 있는 그들의 집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가까운 쑤에우쨌우촌에서의 학살을 전해 듣고는, 하뉴언이 안전지역이라고 모두들 믿고 있었지만, 주민들은 도로변 가까이 더욱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고자 한 것이었다. 그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모든 물건들을 챙겨들고 찻소와 물소를 몰고 길을 떠났다. 길을 따라 황급히 이동하고 있는 이들을 한국군이 발견하고 정지시켰다. 그리고 한줄 한줄 줄을 세워 길에서 그들을 기관총으로 사살했다. 군인들은 그들의 시신을 죽어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그 일이 일어난 뒤 쑤옌면과 마찬가지로 쑤옌타이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 쑤옌폭사

1972년 6월 쑤옌폭의 ‘귀향마을’ 캠프가 조성되었다. 유이쑤옌현 동쪽지역의 뜨겁고 황량한 해변을 따라 양철과 합판이 전선으로 열기설기 꿰어진 집들이 열을 지어 있었다.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을에서 한국군들이 자행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한 일들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사이공정부 소속의 캠프 부소장이 우리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자기 혼자서만 얘기를 했다. 처음으로 그가 한 말은 실제 한국군들은 양민들을 그렇게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옆에 참석한 몇몇 어른들로부터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주위로부터 상당한 제지와 첨가와 잦은 교정을 받아가며 마침내 청룡부대가 처음으로 그들의 주둔지로부터 강을 건너 북쪽에 있는 쑤옌폭으로 온 것에 대해 우리에게 얘기해주었다.

1968년 1월17일, 구정 이틀전에 한국부대가 거의 소개된 2개의 부락 톤똌(1촌)와 톤하이(2촌)를 지나쳤다. 톤바(3촌)에서 군인들은 자신의 집앞에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당사씨를 발견했다. 군인들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11명의 가족들이 집에서 나와 그를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모든 식구들이 선자리에서 그대로 총에 맞아죽었다. 다른 주민들은 모두 병커 안에 숨어 있어서 그날은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군들은 톤뜨(4촌)로 옮겨가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기 전에 이미 몇몇 사람들을 죽였다. 군인들은 주민들에게 베트남을 따르지 말고 동맹군인 자기들을 믿고 따라줄 것을 억지로 강요했다.

쑤옌폭에서 있었던 단일 학살로 가장 참혹했던 것은 1968년 후반에 톤남(5촌)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도 다시 부소장이 혼자서 말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다. 참석한 사람들 아무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북쪽의 4개 부락들은 거의 소개된 상태였지만 5촌에는 아직도 5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청룡부대가 무장 차량을 끌고 진군하는 것을 보고 마을을 벗어나 인접한 언덕의 숲에 몸을 감추었다. 그러나 51명의 주민들은 고행과 불편한 몸 때문에 달아나지 못했다. 임신한 몇명의 부인네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 남은 사람들은 숨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의지가 되고자 함께 모여 집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군인들이 자신들을 적군으로 잘못 보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오해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오는 즉시 모인 사람들을 향해 기관총을 뿜어대어 모두를 죽였다. 34일 후 군인들의 작전이 끝났을 때 다른 마을 주민들이 돌아와 시신들을 발견하고 매장했다.

캠프의 부소장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얘기해 주면서 이것이 자기가 기억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는 쑤옌폭 안의 5개 부락들에서 주민들이 완전히 소개된 다음 부락과 상당 부분의 농지가 한국군의 불도저에 깔려 평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쑤옌폭의 원래 주민 1만5천명 가운데 4천명이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했다. 2천명은 폭격으로 죽었고 나머지 2천명은 마을로 들어온 군인들에 의해서였다고 했다. 우리가 그게 어느 군대냐고 묻자 그는 오직 미군과 한국군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베트남들은 주민들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물었

다. 그는 “물론 베트남들도 사람을 죽였지요.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만 죽였어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다시 “베트남들이 한국군과 교전한 적이 있느냐?” 고 물었다. 그는 “아니다. 그들은 결코 한국군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군들이 양민들에게 보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군들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군대였다.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베트남들과 싸우려 나가지도 않았다. 그저 농민들이나 가축들을 ‘베트남’ 이라고 하면서 죽였을 뿐이다.”

우리가 쑤옌폭 방문을 마치고 쿠앙남성의 성도인 호이안시로 돌아왔을 때 쑤옌폭의 교회지도자인 므이씨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자기가 진작에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하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마을에서 한국군들이 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에게 5촌에서 50명의 주민이 확실한 날짜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50명이라고요? 서너군데 다른 사건까지 해서 아마 200명은 넘게 죽었지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나중에 므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4건의 학살사건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친척들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각각 학살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와 죽은 이들의 숫자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우리가 그에게 그 학살사건들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그와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다음은 그가 우리에게 준 정보 가운데 간략하게 풀어놓은 얘기들이다.

그는 4건의 사건이 1970년에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정보는 그 사건들 중 일부나 전부가 1969년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한다(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종종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 연도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므이씨의 설명:

2월8일 4촌에서 작전중인 한국군대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이 포함된 총 86명의 사람들을 잡았다. 군인들은 주민들 모두를 레후옹의 집 앞마당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폭발물로 모두를 죽였다.

3월22일 5촌에서 한국군들은 여러 개의 다른 병커에서 숨어있던 64명의 사람들을 찾아냈다. 역시 여자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군인들은 그들을 모두 가까이 있는 옹옌리우의 집으로 끌고 가서 폭탄을 터뜨려 죽였다.

7월20일 4촌에서 한국군들은 커다란 병커 하나에 숨어있던 47명의 주민들을 발견하고 나오라고 하는 말도 없이 수류탄을 던져 집어넣어 모두 죽였다.

11월3일 5촌에서 한국군은 보두안의 집 앞에서 53명의 주민을 총살했다. 이 사건은 쑤옌폭의 캠프에 있던 부소장이나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주위 여건이 므이씨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게 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쑤엔터사**

우리가 유이쑤엔현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여덟번째 마을인 쑤엔터사는 쑤엔폭 바로 옆 옥지였다. 쑤엔폭처럼 쑤엔터의 주민들이라곤 최근에 지어진 귀향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때 비옥한 들판이었을 주위 땅들은 모래와 잡초로 덮힌 폐허였다. 다시 조성된 얼마 안되는 들판에서 고구마가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더운 오후, 쑤엔터를 방문한 우리는 캠프안에서 절로 사용되는 작은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밖에서 여러명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한사람, 한사람 그들은 모두 한국군대가 마을에 들어와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앓아간 그 사건을 하나같이 되풀이했다. 우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사람들의 얘기를 모두 들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종이를 찢어 자신들의 얘기를 간략하게 적어 그것을 우리에게 건네줬다. 우리가 떠날 즈음 모두 65장의 종이를 받았다. 거기에는 날짜와 장소, 숫자 그리고 종종 죽은 이들의 이름까지 적혀있었다. 65장의 종이에 적힌 희생자들의 명단은 모두 239명이나 됐다. 나이와 성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11명의 노인, 44명의 젊은 여자들, 42명의 부인들, 그리고 53명의 어린이들이었다.

쑤엔터 주민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마을에서 일어났던 2건의 대규모 학살에 대해 얘기해주었다. 레선촌 가까이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1968년 12월과 1969년 1월 많은 사람들이 레선에서 인접한 쿠앙틴성 안의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빈중사로 달아났다. 당시 쑤엔터에서 진행되고 있던 한국군의 작전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한 것이다. 1969년 2월 구정 휴일 넷째날 34명의 주민들이 레선으로 걸어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자기집에 가서 새해 제사를 올리려고 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준 여자의 언니와 조카들이 그 일행에 속해있었다. 일행 중 아무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 중 4명이 남자였다. 그들 모두 명절 전통복장을 하고 있었다. 길을 따라 가다가 그들은 한국군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그리고 강제로 행진해 큰 모래 언덕배기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사살당했다. 다음날 군인들은 불도저를 몰고와 시신들을 폭탄 구덩이안으로 밀어넣었다.

두달 반이 지난 1969년 4월6일, 한국군은 쑤엔터의 투언안촌 안의 임시초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레선에서 74명의 주민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을 농용토양이라는 높은 모래 언덕 가까이 있는, 물이 없이 말라있는 연못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모두 사살한 다음 시신은 모두 폭탄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고 불도저로 그 위를 덮어버렸다. 군인들은 그 지역에 6,7일간 머물렀다. 마침내 군인들이 떠나고 난 뒤 친척들이 시신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그 구덩이에서 시신을 끌어낼 방법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예를 갖추어 묻었을 뿐이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거들었지만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준 여자는 당시 그 지역에서 어떤

교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에 대해 “단 한방의 총격도 없었다.” 그녀는 그날 고구마를 캐러 나갔던 아이도 잃어버렸다.

쑤엔터의 몇몇 노인들은 우리에게 1960년대초에는 약 8천명의 주민들이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1972년 6월에는 그 절반만이 남았다고 전했다. 1천~2천명이 전쟁으로 죽었는데 그중 600~700명이 한국군에 의해 죽었다고 그들은 계산했다. RVN 경찰대의 한 대위는 쑤엔터의 귀향캠프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20% 정도만이 사이공 정부를 지지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줬다.

**쿠앙틴성, 탕빈현, 빈중사**

1969년 말 무렵, 호이안 가까이 쿠앙남에 주둔한 한국군들은 쿠앙틴성 빈중사에 있는 성 접경지역의 바로 남쪽에 대규모 소탕작전을 폈다. 1969년까지 빈중은 완전히 민족해방전선의 통제하에 있었다. NLF 전사들도 주민들 사이에 살고 있었고 아이들도 NLF 학교에 다녔다. 1964년 동맹군의 포화가 빈중사에 엄청나게 퍼부어지기 시작했다. 1967년부터 1969년에 걸쳐 미국군과 남베트남군 병력이 마을을 손에 넣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지만 마을을 ‘평정’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마침내 1969년 후반기에 이 마을의 주민을 이동시키고 NLF의 토지 권리를 파괴하기 위한 미국군과 한국군의 합동작전이 이루어졌다. 비록 두나라 병력의 합동작전이었지만 주민들은 한국군인만이 동네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모든 사건들은 한국군들이 자행한 것이었다.

1번도로를 따라 황막한 흰 모래 위에 지어진 피난민 캠프에서 우리는 빈중사 마을 위원회의 멤버인 응탐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앉아있었던 그 집안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아무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부쪽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다. 그는 빈중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1964년 1만1700명의 인구 가운데 3천명이 죽었고 4천명이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2천명이 1번도로를 따라 있는 피난민 캠프에 정착해있고 2천명이 정부가 빈중사에 만든 귀향마을 캠프로 돌아와 있다고 했다.

1969년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은 베트남의 통제하에 있는 빈중에 두가지 작전을 펼쳐 마침내 그 지역을 장악했다고 응탐이 말했다. 첫번째 작전은 마을 전체에 밤새 폭격을 하는 것으로 1969년 11월12일에 시작됐다. 아침에 호이안 가까이 있는 캄하에서 한국군들이 헬기를 타고 왔다. 그들은 상륙하자마자 그 지역의 게릴라들의 가벼운 반격을 받았고 대인지뢰 공격도 당했다. 몇 명의 한국군이 죽었다. 사람들은 서쪽으로 국도로 아니면 사이공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빈다오사 남쪽으로 도망갔다. 다른 사람들은 병커 안으로 숨었다.

오전 9시께, 호아엔촌에서 한국군들이 113명의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모두

사살했다. 그들은 전부 여자와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고령과 몸이 불편해 “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젊은이들은 이미 멀리 도망가 버리고 없을 때였다.

웅탐에 따르면 같은 날 조금 늦게 버우빈촌에서 한국군들은 100명 넘는 사람들을 모아 모두 죽였다고 한다. 그는 또 마을 주민들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했다. 주검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고 많은 주검들이 폭탄구덩이에 밀려져 있거나 곧 이어진 한국군들의 불도저 작전에 의해 파묻혀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2개의 그룹 외에도 많은 수의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웅탐이 말했다. 그는 그날 빈중에서 한국군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300명 정도로 추산했다.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이었다.

다음해 1월 말, 1970년 1월 31일자 <AP통신>에 따르면 평화회담을 위해 파리에 간 NLF 대표들이 빈중사에서 1969년 11월12일 동맹군이 의해 죽은 240명의 양민, 대부분 여자들과 노인들이었던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이것은 웅탐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과 같은 날짜였다.

2주간의 긴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모두 빈중사를 떠났다. NLF 정규군과 게릴라들도 역시 한국군들을 무서워해서 그들도 모두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떠났다고 웅탐이 말했다. 한국군들의 행위를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웅탐은 게릴라들이 주민들과 함께 도망을 갔기 때문에 군인들이 주민들을 베트남으로 오인해 죽였다고 했다. 우리는 그에게 한국군들이 무기도 가지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은 어떻게 베트남으로 오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게릴라들이 아니었다. 그들 중 한명도 아니었다.” 초기 공격 후에 한국군들은 불도저를 몰고와 그 지역을 밀고 가옥들과 나무와 병커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15일후 작전이 끝난 후 주민들은 게릴라들과 다시 돌아와 주검들을 매장했다.

첫번째 빈중 “평정” 작전이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두번째 작전이 1969년 음력으로 마지막달(70년 1월~2월)에 시작됐다. 첫날 한국군들이 다시 헬기를 타고 들어와 베트남들의 가벼운 저항을 받았다. 그러나 웅탐에 따르면 게릴라들은 곧 도망을 쳤고 여자와 아이들만이 남아 있었다.

동탄과 호아옌촌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찌모이락꺼우 시장에 모여 있다가 한국군들이 들어오자 가까이 있는 집들의 병커 안으로 숨었다. 군인들은 시장 가까이에서 75명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모두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죽였다. 같은날 한국군들은 산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한국군들은 착륙할 때 처음 약간의 반격을 받았고 그후 어떤 반격도 없었지만 군인들은 사람들을 보는대로 쏘 죽였다고 웅탐은 말했다.

웅탐은 이 2개의 작전으로 알려진 것만으로도 약 700명의 양민이 학살되었다고 추

정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0명이 실종됐는데 한국군들이 모두 죽인 다음 폭탄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고 병커도 불도저로 밀어버렸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한달 가까이 지속된 그 작전 동안 군인들은 마을 전체를 불도저로 평평하게 밀어 버렸다. 특히 동탄, 남빈, 호아옌촌이 그렇게 됐다.

우리는 한국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 웅탐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기술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은 남베트남군보다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군인들은 빈중사와 같은 지역을 평정하는 데는 성공할수 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베트남들은 그 지역에서 한국군들이 게릴라들과 마주칠 때마다 양민들에게 보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군이 한방의 총성을 듣게 되는 날은 그 가까운 마을은 적어도 90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빈중의 버우빈촌에서 온 남자인 안바(25살)가 우리에게 이 작전기간 동안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줬다.

“한국군들은 빈중에 여러 차례 왔었다. 매번 10일이나 15일 동안 있었다. 그들이 탄 헬기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집에서 나와 넓게 펼쳐진 모래밭을 질러 빈다오사로 도망갔다. 그 곳은 사이공 정부가 안전지역으로 평가한 지역이었다.”

“1970년 2월2일(이 날짜는 웅탐이 우리에게 말해준 2개의 작전 중 두번째의 작전 날짜와 일치한다), 우리는 헬기가 다가오자 뛰기 시작했다. 난 운 좋게도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내가 겨우 뒤돌아보았을 때 70살된 나의 아버지와 4명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버우빈과 빈다오 사이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린 한국군들에 의해 저지당하는 것을 보았다. 군인들은 우리 가족과 다른 50명의 사람들을 부락으로 데리고 가서 해안 쪽으로 몰고 갔다. 그들을 모두 폭탄구덩이 둘레에 서게 하더니 모두 사살했다. 빈다오로 도망은 우리들은 한국군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7,8일 동안은 감히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폭탄구덩이 안의 주검들은 아주 많이 썩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억지로 끌어내어 예를 갖춰 그들을 묻어주었다.”

여러 주가 지나고 마지막 연합작전 후 몇 주가 지난 뒤 다낭에서 온 하원부대표 판 슈안 후이씨가 쿠앙틴성 책임자에게 그가 빈중에서 온 피난민들로부터 한국군들이 저지른 양민학살에 대해 들은 얘기를 전해 주었다. 분명히 후이의 관심과 이 얘기를 사이공에서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쿠앙틴성의 책임자는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정부 관리들과 군 담당관과 함께 헬기를 타고 빈중사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질문도 하고 학살당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주검들을 발굴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까지 가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후이씨나 빈중사 주민들이 주시할만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그 이후 조사가 더 진행됐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웅탐은 그 조사는 정부가 그저 “정치적인 이유에

서 한 것이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빈딘과 푸옌성**

이제까지 얘기한 모든 것은 쿠앙옹아이, 쿠앙틴, 쿠앙남성에서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이다. 이 지역들은 청룡부대가 1966년에서 1971년 사이에 활약한 곳이다.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빈딘과 푸옌에 주둔했던 ‘맹호부대’도 양민을 다루는 데서는 청룡부대 만큼이나 악명이 높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1966년 12월부터 란드 공동보고서(1972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안 기사 서비스’ 발행)는 한국군이 푸옌과 빈딘성 모두에서 그때보다 앞서 상당수의 양민을 학살했다고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 보고서는 푸옌에서의 2건의 대규모 학살과 빈딘에서의 1건, 여러 개의 작은 사건들을 기술하는 인터뷰 문서를 담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한국군인들의 잔혹성에 관한 보고서도 냈다.

비록 우리는 푸옌과 빈딘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지는 못했지만 1972년 7월 며칠 동안 우리는 빈딘에서 온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쿠앙옹아이, 쿠앙틴, 쿠앙남에서처럼 당시 빈딘의 군사적 상황은 우리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1번도로 가까이 살고 있는 피난민들과의 대화로 만족해야만했다. 하루동안 우리는 맹호부대원들이 저지른 총 165명이 죽은 5건의 다른 학살 사건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한 건만 제외하고서는 모두 1965년과 196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얘기를 들려준 사람들에 따르면 그런 사건들은 한국부대가 빈딘에 주둔한 첫째 동안 흔히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맹호부대가 주로 자신들의 베이스캠프에 주둔하고 양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일이 줄어들면서 점차 이런 사건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 젊은이는 말하기를 그런 사건들은 자신이 살던 푸켓현의 캣탕사의 모든 부락마다 한건씩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살던 호이록촌에 어느날 아침 비행기에서 전단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곧 그 마을을 폭격하겠다는 내용이였다. 60~70명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챙겨서 피신하기로 했다. 거의 전가족이 함께 간 그 일행은 길에서 한국군 정찰병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들은 한두명 겨우 도망쳐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해준 2~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줄로 세워져 사살됐다.

한국군이 저지른 양민학살 가운데 가장 최근의 보고는 푸옌성에서의 것이다. 1972년 9월10일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는 한국군이 1972년 7월26일과 31일 쑤안선사의 푸롱촌에서 20명의 양민을 학살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12살 미만의 어린이거나 60살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군은 푸롱에서 저격병에 의해 몇 명의 군인을 잃었다. 그 반격으로 한국군은 그 부락에서 사로잡은 모든 양민들을 사살했다. 사이공정부 관리들과 한국군

소식통들은 그 마을에서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요약 및 제언**

우리가 지역 소식통들로부터 들은 45건 이상의 상세한 사건들은 한국군이 20명이 넘는 양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건은 100명 이상의 양민을 살해했다. 우리가 접한 이런 진술들은 이 글에 기록된 증인들을 포함해 1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45건의 사건들 외에도 더욱 많은 산발적인 사건들로 살인과 강도, 강간이 한국군에 의해 자행됐다는 것을 알게됐다.

보고된 학살사건들이 워낙 대규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국군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라거나 부대원 개인이 잘못 행동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판단을 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군들이 저격병이나 지뢰로 부대원들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 양민을 학살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에 따르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한 학살이 있었던 당시를 전후로 “단 한방의 총소리도 없었고”, 지뢰 폭발이나 한국군 사상자도 없었다고 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여자들과 노인들, 아이들이었다고 한다. 남자들은 대부분 숨거나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학살의 몇몇 다른 양상들은 하나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있는데, 아무도 학살을 서로 관련 없는 사고나 실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적은 이 보고서에서 특별히 상세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군들이 작전지역 안의 비전투원인 농촌 주민들을 일부러 잔혹하게 다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대량학살에서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아서, 종종 한줄로 서서 살해됐다. 쿠앙옹아이에서 있었던 4건의 다른 사건에서 한국군들은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과자나 담배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됐다. 이런 행동에 대해 우리가 발견한 유일한 설명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덜게 해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4건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걸쳐 많은 수의 희생자들의 주검은 폭탄구멍이로 던져졌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시신을 숨기려한 시도가 있었다. 물속으로 던져버린다거나 나뭇잎이나 냇짚 속 혹은 쓰레기더미로 덮어버렸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6건의 경우, 주민들은 붙잡힌 자리에서 상당히 먼곳까지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군인들이 주검들을 우물안으로 던지거나 목을 베거나 창자를 꼬집어내거나 강간한 다음 살해하는 등의 잔학행위들을 많이 접했다. 배를 가르거나 강간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임신한 여자들이었다.

베트남인들은 이 잔혹한 학살을 ‘자기방어’로 가장 많이 설명했다. 여러 지역의

주민들은 게릴라부대들이 아주 드물게 한국군들과 교전을 벌였다고 했다. 그들이 만약 교전을 벌이면 한국군들이 보복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베트남군에서 제대한 빈딘 출신의 한 군인은 남베트남군 경찰대였으면 저격당하거나 공격당했을 지역이라도 한국군은 아무런 저항없이 지나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한국언론 정보기관지가 '포획한 적군의 문서에서 NLF 군인들이 한국군과의 교전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수차례 걸쳐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한 바는 한국군이 저지른 광범위한 대량학살의 책임은 한국군에 있기보다는 미국군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욱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됐다. "왜 당신들은 한국군들의 실책에 대해 묻고 있는가? 왜 당신들의 군대가 저지른 일에 대해 묻지 않는가?" 주민들이 우리에게 반문했다. "누가 한국군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였는가? 누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했는가?"

사이공 정부가 한국군을 공산당의 공격에 대항해 싸우는 동맹군으로 언급했지만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던 베트남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한국군은 "빌려온 군대"였고, 미국의 용병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국군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베트남에 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봉급과 계급 특전, 뒷거래와 만연한 부정부패 속에서 혜택을 나눠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공짜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화물수수료 등의 특전을 위해 왔다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에 온 한국군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보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을, 베트남 사람들의 안일을 신경 쓸 이유가 있었겠는가? 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었다.

"한국 용병에게는 아무런 이념도 없었다"고 쿠앙남에서 온 젊은 여자가 말했다. "그들은 베트남에 와서 사람들을 죽이라고 미군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다.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죽일수록,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용병의 본성이다."

2명의 지식인 가운데 매우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한 사람은 그 논리를 더욱 넓혀 설명했다. 미군이 남베트남 군인들에게 보너스를 주면서 그들을 캄보디아로 보냈을 때, 베트남 군인들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한 것과 똑같이 행동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역시 전술적인 책임자로서도 미군은 한국군의 잔혹성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군은 미군에 의해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베트콩'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 '위험 지역'을 평정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군들은 대개 통역관 없이 작전에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들은 그 해당지역을 평정하라는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주민들이 보이는데로 무차별 살상했다고 그

들은 설명했다.

쿠앙응아이의 빈득사에서 온 한 여자는 1968년 그녀가 살던 마을에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던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군중들 앞에서 연설했던 한국군 대위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베트남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그는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미군들이 그를 포함한 다른 한국군인들한테 어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가 '베트콩'이라고 충고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불행한 실수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베트남에서 지내게 되면서 미군이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그의 부하들에게 주민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고 그 여자는 전했다.

어떤 이들은 한국군의 출현으로 미군은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 불교 승려는 "미군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한국군을 이용했다는 이론을 개진했다. 한국군이 워낙 잔인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미군들은 상대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됐다. 그 승려는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미군이기에 때문에 미군들은 군사적 전략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와 얘기를 나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군들이 지상작전에 투입됐을 때 그들은 미군보다 더 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와 인터뷰한 베트남인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있었다. 미군이 농촌지역에 퍼부은 폭탄과 포탄은 지상군이 벌인 어떤 공격보다 더 심한 파괴와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외국군대를 지상군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발전시키고 보강했던 하나의 전략이었다. 베트남에서 한국군은 2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했다. 합심단결한 동맹군이라는 인상과 군사적 보조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지상군으로 그 나라의 다른 종족과 주민을 고용하는 것은 미국이 이 전쟁을 커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만약 미군을 모두 지상군으로 투입시켰다면 본국에서 틀림없이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미군 지상병력 개입을 줄이라는 여론이 드세지자 미국정부는 남베트남 병력을 증가시키려고 애썼다. 남베트남군을 지상군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그만큼 더 남길 수 있게하는 것이기도 했다.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국군은 남베트남에서 미군과 함께 철수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국용병 이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1975년 겨울, 베트남과 캄보디아 군대는 미군의 엄청난 정보와 군사장비, 자금을 지원받아 미군의 명분없는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

<출처 : America's Rented Troops: South Koreans in Vietnam,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자료집 >

## 별첨 2 : 영문번역자료

### The secret tragedy of Vietnam

Ho Chi Minh= Ku Su Jeong/ correspondent in Vietnam

Remember the article entitled "Terrifying Korean Soldiers" published in the Global Village section of 256th edition of weekly news magazine in Korea. This article, which confirmed the atrocities of Korean soldiers and some of the sites where the killings took place, shocked many readers around the world. The writer and Ho Chi Minh correspondent for , Soo-Jung Koo, this time visited many of the areas where Korean army was stationed at that time. This included 13 villages, nine towns, and five provinces in the central part of Vietnam. Graphic eyewitness accounts by some one hundred survivors she met during the trip left Korean readers speechless about the disgrace.

Although 24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d of the Vietnam War, Koreans never paid full attention to the scars the Korean soldiers had left on Vietnam's people. They were busy calling for compensation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ir wrong doing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 War respectively. However, Koreans turned a blind eye to the victims of the Vietnam War. hopes that this special repor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urge Koreans to compensate for the victimized Vietnam people at the governmental and civilian level. In addition, its purpose is to help people have clear understanding of at least, a part of the history of the 20th century.

Will there be a requiem for the dead? The sky was gray the whole morning and wind caused the branches to sway as the car left Saigon and entered State Road 1. Soon the sky started to shed tears, hitting the windows. Thirty years. It is time enough for a boy to be born, grow up, marry and become a father. As I drove on, I was traveling back to the past and the broken souls of the victims greeted me with tears.

### Stories that are hard to believe...

In every city that is connected to the main artery of Vietnam, State Road 1, the Korean military was stationed during the Vietnam War. The White Horse Unit was stationed in Cam Ranh, Ninh Hoa, and Tuy Hoa; the Tiger Unit in Song Cau, Quy Nhon, and Phu Cat and the Blue Dragon Unit in Chu Lai (Chau Lai), Hoi An, and Da Nang. ROK (Republic of Korea) Forces Command was located in Saigon and the Field Command in Nha Trang. For this reason, the 'pilgrimage' to find the trail of the 'dai-han' (this is what the Vietnamese called the Korean soldiers during the war) continues along State Road 1. This two-lane road, which was built during French colonial rule, has many ruts as if to prove that Americans had kept their promise to return Vietnam back to the Stone Age. There were many holes and bumps and the car had to slow down from time to time to avoid running into ongoing restoration work.

The guideline for Korean forces in Vietnam read "Act brave and become terrifying soldiers to the enemy...be kind and courteous ' dai-han' to the Vietnamese..." Korea first dispatched non-combatant units such as Taekwondo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 trainers and a medical team through Vung Tau, the southern part of Vietnam on September 22, 1964. Then, in October of 1965, combat units such as the Blue Dragon Unit (Navy Corps 2nd Brigade) and the Tiger Unit (Capital Defense Command) landed in Vietnam as did the Tiger (26th Regiment) and White Horse Unit (9th Division) later on. Koreans built roads, schools and hospitals, provided commodities and taught Taekwondo to people. However, that was not all.

"Uncountable numbers of people were killed when Koreans first came into the villages. When they were staying the villages, local people had to leave their homes. Only when the war was over and Koreans had left could they return home. However, that really wasn't the end of the war. Many lost their hands and feet due to unexploded shells and remaining landmine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y had to bear the grief of losing their loved ones; their parents, wives, husbands and children." I have heard frightful tales of slaughter in war stories before. I used to think that, like any other war stories, they must be laden with exaggerations. Nonetheless, the stories of civilian killings by the Korean military made me feel as if I was watching a horror movie that sends ice-cold shivers down your spine. At first, the Vietnamese appear as extras in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the movie. However, when the camera angle closes up on them, they become the main actors, breathing their last breath before their gruesome deaths. "The intestines were dangling outside the body, with maggots swarming in the fat of the intestines that had turn yellow." "As if slaughtering new born babies was not enough, they destroyed entire graveyards using bulldozers." "People could be seen on State Road A-1 picking up pieces of torn flesh and smashed up bones that were scattered throughout the road." The testimonies of the survivors were just unbelievable and too brutal to be true. "Civilian Killings by Korean Soldiers," these five incredible words repeated disconcertingly in my head.

**The official count of civilians killed by Korean soldiers may be as high as 5,000.**

The Vietnam War is commonly dubbed as "the war without a battle line"; a war without a front or a rear area of operations, with identification of friend or foe virtually impossible. In describing the situation in Vietnam, a Korean soldier once said, "One hears the singing of a cuckoo, but not even a chick is to be found." The Viet Cong were everywhere and nowhere. The Vietnamese called the villages they lived in 'soi-doi' (sticky rice made with green peas). This depicts the irony of the village, which was controll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military during the day, and ruled by the Viet Cong at night. In such a situation, Korean soldiers had to face the hard reality that guns had to be pointed at civilians in order to survive. Maybe the killings were inevitable. It was raining when we started off from Saigon, but as soon as we entered the central area, we could see a blazing sun hanging high in the dry air. Outside the car window, the scenery was a midsummer wave of green. Hills looking as cozy and soothing as a mother's breast enveloped the villages. Farmers wearing nun-ra (traditional Vietnamese hats), and carrying baskets at their waist, were sprinkling fertilizer on the rice paddies with their hands. Cows were grazing lazily on the pastures, children swimming playfully with a flock of geese in the pond. But there were days when flowers, dripping with blood, fell ceaselessly and covered the waves of green. Farmers running for their life desperately threw away their baskets and were shot mercilessly. Young girls bringing food for the farmers were raped, killed, and their bodies abandoned, naked.

Newborn babies were killed at their mothers' breasts. Those were the days when even the sun went blind.

For nine years, from 1965 to 1973, a total of 312,853 'dai-hans' came to the tropical land of Vietnam, far away from home, as members of the Blue Dragon, White Horse, and Tiger Units. 4,687 of them never made it back home. A total of 1,179 battalion size battles and 556,000 small-scale battles were fought. In combined ROK/US operations, the United States was in charge of artillery fire support in the rear area, whereas the Koreans were the ones who actually conducted operations in villages. The fighting guidelines that the Command issued were, "Kill, burn, and destroy without leaving a single speck," "Better to misfire than to lose the enemy." "Dry out the water (people) to catch the fish (Viet Cong)," "Even children are spies," and "Every house that has a tunnel belongs to the Viet Cong."

In Vietnam, the Korean military killed a total of 41,400 enemy soldiers. But there were also killings of civilians that have not yet been officially reported nor made known to the world. According to the Vietnamese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s, the total number of civilians killed by the Korean military-the Ministry is careful to add that it is a preliminary count-comes to approximately 5,000.

However, the Vietnamese people do not trust these figures. They even express their obvious discontent over the government's lukewarm attitude to unearthing the truth. In a certain region, the figures claimed by the inhabitants more than double the official count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s. The region that I visited covers only half of the places mentioned in the "War Crimes Report-The Atrocities of the Korean Military in South Vietnam" published by the Vietnamese Politburo. The deaths that I encountered in my travel were so shocking as to overturn the solemn and noble image that I had of death. Just as the victims were not Viet Cong, they were not heroes either. And their deaths were neither touching nor heroic. Their deaths are not commemorated, and the dead were not granted any posthumous decorations. No subsidy from the Vietnamese government, nor compens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Nevertheless, cenotaphs have been erected, memorial services held to solace the dead. And documents have been prepared to record their pain in history. One last word. Throughout my travel to the sites of mass killings, picking and probing into their pain, I have never been threatened with revenge.

With my long and exhausting trip behind me, I still feel the warm and innocent smile of the Vietnamese living in me. Thirty years have passed. Isn't it about time for us to sing an ode to comfort the souls of the victims?

(273th edition of "The Hankyoreh21"/ 2. Sep, 1999)

## The Reason he had to Point His Rifle at His Man

**Testimony of platoon commander Jae Joon Yoo of the Blue Dragon Unit "I'd like to pray and lay flowers for broken souls of the innocent victims."**

Pusan= Hwang Sang Cheol/ reporter of "The Hankyoreh21"

In 1966, Jae Joon Yoo, now 61, was 3rd Platoon commander, 6th Company, 2nd Battalion of the Blue Dragon Unit assigned to Vietnam. He told profound stories regarding the civilian killings by Korean soldiers. I met him when I was tracking the stories of massacre in hamlet of Tho Lam in Tuy Hoa town, Phu Yen Province. This incident in which 46 residents died was covered by the January edition of monthly magazine and by KBS 2, a major Korean TV network on February 10.

"On May 14, 1966, the 1st Platoon, 6th Company, 2nd Battalion of the Blue Dragon Unit herded residents of Tho Lam village into one place and launched a search operation. It was 8:40 am. when 1st Platoon commander Woo Sik Choi approached a cave that was suspected as a hiding place for the Viet Cong. As he drew near to the entrance, grenades exploded suddenly injuring him. He was transferred to the hospital by helicopter. Angry and frustrated members of the 1st Platoon then indiscriminately opened fire at the residents...' the story from monthly magazine and TV of KBS TV documentary ended here.

In its efforts to unearth the truth about the story, , weekly news magazine in Korea, was able to obtain the address of Jae Joon Yoo, then platoon commander whose platoon was sent to the site for a counteroffensive 15 minutes after Commander Choi was sent to the rear. Obviously, his stories could not reveal the whole truth about the mass killings. However, he spoke frankly about all of his experiences on the battlefield without trying to hide a

single detail. / Editor "Don't shoot, you bastard!" Platoon commander Yoo pointed his carbine at him. A huge blaze was swallowing the village as it belched out black smoke. The man he aimed his gun at was not a Viet Cong. Neither was it a Vietnamese civilian. It was one of his Korean soldiers—an angry noncommissioned officer of the 1st Platoon with bloodshot eyes. "She is a wife of a Viet Cong. I have to shoot her." "No, put your gun away!" In front of them stood a 40-year-old woman trembling, her face white with fear. An innocent looking girl, around the age of five or six, was standing next to her. "Don't act carelessly or I'll pull the trigger." A series of shots continued and they shook the whole village. Platoon commander Yoo kept his gun pointed at the soldier and eventually the noncommissioned officer put his gun down and left.

#### **Everyone was going mad.**

The eyes of the soldiers of the 1st Platoon were filled with rage. Four members of the platoon were injured including the platoon commander. "Everyone was hot for vengeance. So was the officer. He wanted to take revenge for the commander." Yoo saw a resident being shot to death when he tried to save his life by running away. Corpses were lying here and there but he doesn't remember how many dead bodies were there. "I wasn't keeping track of the dead. Neither was I able to do it nor was it necessary to do so. I didn't see the bodies gathered in one place." He presumes that civilians were killed, considering the situation back then. "Soldiers opened fire at anything that moved or ran. Sometimes, they shot dogs. If that woman and the girl tried to run away, soldiers would have shot them."

He relates that he didn't lose his mind. After the noncommissioned officer left, he told the woman to leave the operations area. She nodded and left with the girl. He watched them go until they were out of his sight. "I could see that she was grateful from her look. I am sure that they survived." Yoo said he once let a boy run away from Korean soldiers in another village.

One day in October 1966, the 2nd and 3rd Platoons were supposed to attack a village after sunrise. Yoo showed the 2nd Platoon commander to the entrance of the village and was returning to the 3rd Platoon when there was the loud sound of an explosion. "Boom!" I checked over the radio and learned that one

soldier had died and three, including the commander, were injured. Two Viet Cong that were hiding along a little stream had thrown hand grenades and escaped.

When it was bright, the troops entered the village, firing from some 50 meters from the entrance. All of a sudden, soldiers shouted. "There a boy is running away!" They said a boy, seven or eight, ran into the forest. Some members of the platoon that were searching the houses rounded up a group of seven villagers and gunned them down. The boy ran when he saw that they were so infuriated. These men tried to run after the boy but Yoo held them back. "We can't kill them all. Let him go so he can return to take revenge for his family later."

Yoo ordered his men not to kill recklessly. However, in order to survive on the battlefield, one must kill. "We were passing through the village when I heard a gun shot. One man shot an old woman in her 70s. 'Why did you shoot her?' I asked. He answered that she got in his way. It was a combat situation in wartime."

Yoo aimed his rifle at his men in order to save the lives of civilians in Tho Lam. However, it was only very unusual situation. He also had experienced the very opposite. He witnessed the death of the civilians whose lives he tried very hard to save.

#### **Lamenting the Souls of Three Vietnamese**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the Blue Dragon Unit carried out a large scale mopping-up operation named the 'Yong An Mission' in Son Tinh, Quang Ngai province. On the third or fourth day of the operation, the 3rd Platoon delivered an attack on a village. People ran about in confusion and were all rounded up. There was a mountain path leading to next target but it seemed that they could easily be attacked on that trail. Yoo selected three men in their thirties from among the villagers. He ordered each of them to bring a sickle and placed them at the head of the group to lead the army. After climbing for some time, they came to a board placed under a rock. He could feel the warmth through the board. It was great target for sharp shooter, but Korean troops could survive because of the three Vietnamese at the front.

That day in the afternoon, a man of the 3rd Platoon was wounded. He was

shot in the anus so it was not possible to give him a morphine shot. Other soldiers tore down a door, laid him on it and the three Vietnamese and one member of the platoon carried him. Yoo ordered the platoon to move to the road. When the situation had calmed down a bit the three men begged Yoo to free them. "You'll die if you go now. Just wait a little longer." He told them. There was high possibility that the Korean soldiers on the mission will shoot them. Yoo wanted them to live and in order to calm their fears, he wrote them 'a letter of personal reference'. "These men cooperated with Korean soldiers. Let them live." He wrote. He signed the note and handed it to them telling them to show it to Korean soldiers when they come across them.

At that moment, 1st Platoon commander Kim (first name unknown) who was fighting some 100 meters away from Yoo radioed him. Kim said that his platoon would come to join Yoo's platoon. Two, three men of the 1st Platoon carried a corpse on their shoulders wrapped in a blanket with blood dripping down. Commander Kim who arrived with them glanced at those three Vietnamese and suddenly picked up his M16. It all happened so quickly. "These are damn Vietnamese...!" Then he gunned them down. There was no time to stop him. Those helpful Vietnamese fell down drenched in blood. "You, son of bitch! Stop it!" Yoo jumped up infuriated but it was useless. "1st Platoon, retreat!" Kim ordered as he ignored Yoo and went down to company base. (We asked around to find the then 1st Platoon commander Kim. We were able to talk to him on the phone a week later. "That never happened." He strongly denied the incident. In response to this, Yoo said "Would you want to admit that you killed people? But I saw it with my own eyes.")

Those Vietnamese did not die instantly. "They were twisting their bodies in pain like snakes; that's how I can describe it." An artillery man liaison officer who couldn't bear to see them suffering any longer pulled the trigger. "Bang! Bang! Bang!" went the gun. He chose painless death for them. "They died because I held them back." Yoo said Kim was blinded with anger because he lost his men. Yoo recalls that he witnessed same kind of revenge the day before.

The 1st and 3rd Platoons joined together and were heading to the next target.

They placed a rocket bomb in a cave presumed to be a Viet Cong stronghold and blew it up with TNT. The two platoons met with fierce resistance from the village. The 1st Platoon went into the village. Yoo led a squad to surround the village and delivered an assault from all sides. Troops killed five or six men escaping the village and seized a rifle. They were wearing military uniforms similar to Korean troops. A machine gunner and an assistant to the 1st Platoon died during the combat in the village. The 1st Platoon Commander came to a corpse of a Viet Cong. "His lips turned blue with anger. He fixed a bayonet on his rifle and threw it at the dead body. The rifle stood up stuck in the corpse and he ripped its stomach. He was so enraged and frustrated."

### I Want to Meet the Girl

In the evening of the day the three friendly Vietnamese died, Yoo had to experience the tragedy of war again. He was sitting with his soldiers down at the company base when he heard a gunshot. Yoo instinctively got down on the ground. "Where did it come from?" Soldiers were mumbling with confusion as they covered their faces. Then he saw that one of his men's hands was bleeding. "Are you shot?" "No, sir." The soldier had shot himself in his hand. Yoo was shocked. "Why did you shoot yourself?" He shouted angrily and said that he would never be transferred to the rear. Yoo posted him on sentry. The wounded man walked away bleeding. When he was gone, the 1st squad commander came up to Yoo and begged him. "He is an only child." The soldier was later sent to hospital. When Yoo came back to Korea, he met the soldier in Jinhae Hospital. When they came face to face, the soldier tried to hide. "Don't hide. This is not a battlefield." Then the man reluctantly came and greeted him.

Five years ago Yoo had gastric cancer and underwent an operation in which part of his stomach was removed. He spent all his money he had saved from working on an ocean liner on the operation. When he fought in the war in Vietnam he was in his mid-twenties but now he is over 60. He didn't try to cover up the civilians killings by Korean soldiers by saying "It was hard to tell civilians apart from the Viet Cong."

"Facts should be told honestly without anything being hidden. There were good things and bad things people did as human beings. It was wrong to shoot noncombatants. I hoped that they could dodge my bullets but I as a soldier, I had to fire. There must be people who were killed by my men... I did things I should not have done as a human. When I think of the victims, I regret and repent my behavior. Many years have passed and those who killed innocent people should be able to pray and lay flowers for the broken souls so that they can rest in peace."

Yoo said he would like to meet the girl he saw in Tho Lam if she is still alive. He asked us to find the girl for him.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to her if I get chance to meet her. She must be deeply hurt with the scars of the war still with her and I can't tell her that she's alive because of me..."

(296th edition of "The Hankyoreh21"/ 14. Feb, 2000)

## Emotion-filled Reunion In Vietnam

### 'The Koreans Peoples' Efforts to Acknowledge and Repent for Civilian Killings Transformed Korea's Image in Vietnam

Ho Chi Minh= Koh Kyoung Tae/reporter of 'The Hankyoreh21'

"Does someone have old scores to settle with Koreans living in Vietnam?" Mr. Park (38) a Korean businessman in Ho Chi Minh, Vietnam couldn't understand why. He thought, weekly news magazine in Korea, was making fuss out of things that were not worth mentioning. It was bit more bearable when an issue was made of "New Lai 'dai-hans'" back in May last year. There were realities in Korean society in Vietnam that deserved a wake up call. However, in less than six months, the magazine again published the "Civilian Massacre by Korean Soldiers in Vietnam War". This time, some of the local newspapers including and Weekly news magazine in Ho Chi Minh, reported the entire story. It took no less than a month for most of the Vietnamese living in Ho Chi Minh to read or hear about it. "I don't see any point in bringing up an issue that has not been mentioned for more than 30 years...It's not good for anyone..." Park adds. He was correct. The special article on Vietnam entitled "The secret tragedy of Vietnam" published in the 273th edition of (Sep. 2, 1999) is now the main topic of discussion everywhere in Vietnam. I met a sophomore majoring in mass communications at Ho Chi Minh National University. The student carried a copy of the article from in his pocket diary. "When the article was first published, whenever more than two people got together, they only talked about the civilian killings by Korean soldiers. People from the north said 'we've never heard of this before'. However, those from the central regions where the actual massacre took place, said that 'these are familiar stories'." and reported this matter for three consecutive weeks. As the daily newspaper followed suit the story gained more attention. Everywhere among the Ciclo (bicycle-type rickshaw) drivers, in the marketplaces, and in

beauty saloons talk was about the tragic incident during the Vietnam War.

### **Korean Youth Lowers their Heads With Shame**

Civilian Killings by Korean Soldiers. Is bringing this issue up really so detrimental to Koreans living in Vietnam? Among those Vietnamese I met during my travels, there were many who had different opinions. "I never realized what sincere people Koreans are." "I can now understand how Korea was able to achieve such great economic developmen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Some might dispute this as being nonsense. However, the truth is, it is not. Many Vietnamese are now praising Koreans for their open and genuine response. Why are they doing so? There is one thing I need to make clear. It is not exactly the "Civilian Killing by Korean Soldiers" that is the issue in Ho Chi Minh. The Vietnamese people are touched that Koreans voluntarily and honestly made an issue of their past to repent and have made an apology. It is more meaningful because this issue was something that even the Vietnamese media never paid attention to. Vietnamese are surprised to hear that a 'Donate to Repent' campaign is going on in Korea. On Sunday, November 28, at 3 a forum was held in the Exchange Room on the second floor of Ho Chi Minh Youth Cultural Center. Up until now, various kinds of similar forums and events involving foreigners have been held here but this one was first of its kind. The name of the forum was "Interview with Su-Jeong Ku" the Ho Chi Minh correspondent who wrote the hotly debated article entitled "On-site Report On Civilian Killings by Korean Soldiers" published in 273th edition of . "Why did Korean mercenaries had to be so cruel? Why did they have to be so out of their minds to kill even the new born babies?" "Is Korea still subordinated to the U.S?" "If Koreans are demanding compensation from the U.S. for the alleged massacre in Nogunri, then shouldn't they be making compensation to Vietnam for their own wrongdoing?" The questions, shouted by some 200 young Vietnamese people that crowded the room, were serious and sober. However, the words from the writer's heart touched their souls. "It gave me great pain to reveal the blunders of my own people. However, if I hadn't done it, somebody would have done it in the near future. The past cannot close the door behind itself." The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students studying in Vietnam read a letter of apology and lowered his head with

shame. "We love your courage" responded the Vietnamese students. "We are always ready to forgive you." they added. Sons and daughters of the two nations have inherited the pain and shame of their parent. On that day, some 30 years after their fathers fought against each other, they opened up their minds and embraced each other with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 **It was something hard even to imagine.**

"It was first time that this center held a forum on such a sensitive political issue." Nguyen Xuan(42), the Chairman of the Hochi Minh Youth Cultural Center commented that young Vietnamese requested that such event be held.

"After the article was published, many called to ask how they could reach the writer. It was the hope of the center that Vietnamese youngsters could learn something by meeting and talking to her." Thanks to her article and the forum, the correspondent became a celebrity in Vietnam. She was regarded as "a person that represents young Koreans." As her picture appeared often in , many people such as a waiter in a hotel coffee shop recognized her. The waiter refused to charge her for her drinks. She was sometimes surprised when even people in Nha Trang and Ninh Hoa in the central part of Vietnam recognized her. Thuy Nga(37), the reporter who wrote the articles in boasted that after writing the article introducing the original article from and reporting the ongoing campaign in Korea, he received 'The Reporter of the Month' award. He was selected by other staff reporters throughout the entire newspaper agency and, as financial compensation, his salary for that month was doubled. "The articles totally changed the notions the Vietnamese had of Korea and its people. Deep in the bottom of the Vietnamese people's minds were feelings of hatred for the Koreans. Korea's role in the Vietnam War damaged Korea's image and so did the recent incident in which the managers of Korean businesses beat the local workers. Against this backdrop, Korean soap operas that started coming into Vietnam just few years ago are playing great role in enhancing Korea's damaged status in Vietnam. (These days, is really popular.) Imported Korean dramas occupy are shown on prime time on Hanoi Broadcast and Ho Chi Minh Broadcast, not to mention the local broadcasting systems. "Korean TV dramas only partially improved the impression we had of the Korean people. However, the recent news of the

campaign to 'Donate to Repent' completely transformed the images of Koreans here in Vietnam." analyzes Thuy Nga. From Korean people's attitude to repent and confess their sins of the past, the Vietnamese could see the 'beautiful potential' they possess. The same thing happened at the scenes of the civilian massacre. Tram Thi Due, who is now an old lady, was breast feeding her baby at her home when Korean soldiers came into her house and raped her. She also had to watch her husband, who was not a Viet Cong but worked for the U.S military, shot to death. When she recently heard about the campaign in Korea, she couldn't believe her ears. Her eyes were wide open with doubt and surprise, and she said it's something that is impossible to imagine. Maybe it's because Koreans are remembered as terrifying figures. Reuter Expresses its Interest The article 'Civilian Killings by Korean Soldiers' published in became a small storm and hit Hochi Minh. It is now gaining strength and heading north, moving quietly but with speed from the south to the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of Vietnam. It might be heading to other parts of the world, attracting more attention. World famous media agency Reuter is showing its interest in the issue. It is scheduled to interview correspondent Su-Jeong Ku soon and start reporting on the issue in mid December. "Some 1000 people died in Vin Dinh province? That is hard to believe... Even in Mai Lai Massacre, the number of death toll was 504. How could killings involving such a large number of people remain unheard of for so long?" said Reuter with great surprise. "Nevertheless, our objective is not to expose Koreans people's past atrocities. It bears much greater significance that Koreans themselves voluntarily brought this matter to light. We want to show the world the faces of beautiful Koreans." Now, it all depends on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s failure to make sincere apologies to Vietnam and its people will leave them only with feelings of betrayal and deepening hatre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s worried with the fact that these stories will create 'the Vietnamese version of Nogunri' and is concentrating on hiding the facts. A gale named 'Civilian Massacre by Korean Soldiers' that started in Korea hit Ho Chi Minh and Hanoi and is now heading toward the rest of the world. It might some day turn into a huge hailstorm and return to swallow the Korean government.

(287th edition of "The Hankyoreh21"/ 16. Dec, 1999)

## Words of Condemnation and Drinks of Reconciliation

### Massacre in Vin Dinh Province All 380 People Turned into Dead Bodies Within an Hour.

Vin Dinh= Ku Su Jeong/ correspondent in Vietnam

Remember the peak of An Khe in Vietnam, comrade?  
The place we retrieved against the shower of bullets  
With our strong fight and blood  
The warriors of the Tiger Unit  
Shine the merits in the military history

This song was sung by the members of Tiger Unit to celebrate the victory of the one of the most fierce battles of An Khe. The aim of this battle was to secure Road 19 that runs from east, the American military port of Quy Nhon through the central part of Vietnam to west end till the Cambodian border. Tay Vinh village in Tay Son, Vin Dinh province was the town located closest to Road 19.

#### A mother who lost her legs due to a hand grenade

At the entrance of Tay Vinh village, if you climb up the road three old trees comes into your sight. Across this wide open space where the trees grow stands a shabby building. The building is about the size of an average community center in Korea. This building was the official residential place for the People's Council.

On a wall of the office was a big poster entitled 'Names of Victims Killed by South Korean Military in Binh An Village in February, 1966'. It was the only

notice in the office. It must have been written quite some time ago since the paper had turned yellow. On the left numbers were written and right next to it were the names in tiny letters. The number ended in 646. The Chief Secretary of Tay Vinh village, Nguyen Tan Lan pointed to the number 316 Nguyen Thi Kim Huong(then 41). It was his mother. His name also appeared on a different list, one for the survivors. "My mom lost her legs because of the hand grenade. She was lying on the ground and crying out loud. I was in an underground tunnel and had to listen to her painful screams all through that night. It was like hell to listening to her agonizing voice.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Nothing."

At 2 a.m. on February 15, 1966, there was first sound of firing in Tay Vinh village in An Vinh. Lan rapidly hid himself in a underground tunnel in his house with his mother and sister. At 10 a.m. the boom of guns became louder and around noon, the cannon's roar that was first heard from Phu Phong and Phu Cat area could be heard from neighboring region, An Vinh. "I think they are going to proceed into the village today." said his mother. Lan's family came out of the tunnel to have lunch before the soldiers come into the village. When they came out of the tunnel, their sight was blurred by smoke from cannons and burning houses. At that time, they heard number of shots and saw helmeted soldiers wearing navy blue uniforms 700m northwest of the tunnel. The Korean soldiers took his family to the rice paddy in Le Khanh.

"There were lots of people on the paddy. The soldiers made people bury their faces in the ground and lie down on their stomachs. Around 3 p.m. they started shooting magazine rifles and throwing hand grenades. A M46 grenade was thrown in his direction. He sprang up and ran three or four steps as the grenade hit the ground. His mother lost her two legs and his sister died instantly. Lan passed out but regained his consciousness and crawled along the fences. He found an underground tunnel and hid himself into it.

In Tay Vinh village in Tay Son, Vin Dinh province, between January 23 and February 26 of 1966 (lunar calendar), mass killings by three companies of the Tiger Unit were carried out in 15 places. The number of people who died amounted to some 1200, including those disappeared. Among them 728 are

identified and are officially confirmed dead. The number includes 166 children, 231 women, 88 senior citizens of aged between 60-70 and 8 cases in which the entire members of one family were killed.

#### **Shooting people one by one outside the underground tunnel**

I got in a van with the chief secretary to head to Go Dai Memorial Tower. After riding for about two minutes, the car brought us to Tay Vinh Junior High. "It was 1984 or 85 when I wrote a letter to a Korean governmental organization. I informed them about the slaughter in Tay Vinh village and made a request to build us a school here as a part of reinstatement effort after the war. The organization responded positively and we prepared sites and paper work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chool. Later, on-site inspectors from Korea arrived but their assessment was that this place was too remote and decided to build a school along Road 19 near Tay Xuan village. If only had Koreans built us a school here we would have not have held such grudges against them. So people of our town donated their money to build this school."

We drove for 10 more minutes and arrived at the Go Dai Memorial Tower. The names of the victims were engraved in minuscule red letters. The largest killings among Binh An civilian massacre happened in Go Dai, in which 380 residents lost their lives within an hour, without leaving a single survivor.

To meet another survivor, we got back on the van and drove for another 10 minutes along the road that goes through the village. Soon we came to a river as calm as a lake. There were few boats and hundreds of ducks were swimming in flocks. It was the Con River. Thirty three years ago, soldiers of the Tiger Unit crossed this river to drive into An Khanh village. "We saw the Korean soldiers coming so we hid in a underground tunnel. They threw tear gas into the tunnel. People were drenched with tears and were gasping for breath. When they couldn't bear it anymore, they crawled out of the tunnel onto the ground, only to be shot by the soldiers. Phan Thi Vui, now 76 years old, was shot in her head when she crawled out and she fell back into the tunnel. Among the 13 people that were in the tunnel, only she and her



daughter Le Thi Xuan, now 58, survived. Phan Thi Vui lost her granddaughter and grandson and her mother died on that same day in a different tunnel. She has a bullet hole in her left temple and a bullet wound on her back. She still can't use the arm that she broke when she fell back into the tunnel.

I was listening to the old lady's stories in her yard when her son-in-law suddenly appeared. He was shouting and pointing fingers at me. "Dai-hans killed my two children! If my children were alive, they'd be about your age. You want to hear the story? Damn you!" His wife Le Thi Xuan, startled by his sudden actions, ran up to him and tried to take him out of the yard. He shouted louder as he pushed her away from him. "The eldest was only seven years old and the younger only three. Dai-hans recklessly shot into the tunnels and threw grenades. I picked up the pieces of their torn flesh and smashed up bones that were scattered everywhere and buried them. How can I not have a spite against them? If I were to vent my grudge, it's not enough to stab you to death!"

#### Toasts to "Share the Grief"

Only after many people including the chief secretary and neighbors held him back, Nguyen Van Gio calmed down a bit and apologized to me. "I am very hot-tempered. During the past thirty years, no Koreans ever came to visit this place again. For all those years my feelings of hatred had grown and grown. Now that you've come here, I think my grudges are wearing off a bit. I know I should forget it. I tell myself to erase it from my memory. Yet, please tell your fellow Koreans that our people have been living with it all their lives."

The chief secretary took me to his house and treated me with 'Bao Da', the traditional village rice wine. Slices of lemon were served as side dishes and the drink was put in a military flask with USA marked on the bottom. Bao Da tasted sweet at first then bitter when swallowed. It reminded me of Makkoli (unstrained Korean rice wine) and Kaoliang (Chinese traditional wine); a mixture of those two would taste just the same. We continued drinking without saying much, pouring drinks into each other's glasses. Soon, the sun hung on the horizon and we ran out of Bao Da. He pulled my hands, suggesting that

we go for some more drinks as a gesture of reconciliation. I couldn't refuse his suggestion because of that word 'reconciliation' so I followed him. We ended up drinking in Le Van Hoa(31)'s place. He also lost his mother, brothers and sisters. One by one, others from the village came to Hoa's house.

Shortly, the whole village people were drinking together and doing 'Chia Do i'. 'Chia Doi' is a Vietnamese tradition in which everyone shares a huge glass of drink together or one person drinks half of a small glass of drink and offers rest of it to next person. I couldn't refuse that drink, either. "cheers!!"

The hands of the clock was pointing to nine and it was pitch black outside. The chief secretary stood up and proposed a toast for the last time. Then he extended hands of reconciliation. I held his hands tight. "There never existed any occasions like this before. Now the massacre is a thing of the future. (He was really drunk.) Let bygones be bygones. There is tomorrow. Now hold your hands..." He broke down into tears and couldn't finish his words.

The war is over and there are no more killings. However, for those who have been through it, it is never over. War creates irreparable discontinuation and wounds, and leaves marks that cannot ever be erased. The night sky was filled with tearful stars.

(273th edition of "The Hankyoreh21"/ 2. Sep, 1999)

### 별첨 3 : 베트남전 관련 논문 및 서적

#### 학위논문

- 정종현, 1998, 「베트남전 소설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길, 1998,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과 활동」, 목원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향, 1988,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에 관한 연구 : 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종, 1991, 「한국군 베트남참전의 결정요인과 결과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정옥, 1993,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연구 : 국내와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혁, 1998, 「제3공화국의 베트남 파병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반성음, 1990,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시 정책결정과정」,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태, 1983,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한미관계」, 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구논문

- 강정구, 2000,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황해문화 2000년 봄호 430~441쪽
- 강정구, 1995, 「베트남의 분단과 미국의 역할, 동남아시아연구 제4집」, 한국동남아학회
- 강정구, 1999, 「한국전쟁과 양민학살」, 학술단체협의회'99 제3회 정책토론회
- 강정구, 1997,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의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서적

- 리영희, 1985, 「베트남 전쟁 :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 두레
- 구엔 반 봉, 1986, 「사이공의 환옥」, 친구
- 에릭 R. 울프, 1984, 「20세기 농민전쟁」, 형성사
- 듀커 외, 1986, 「베트남 혁명연구」, 세계
- 더글라스 파이크, 1985,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사연구」, 녹두
- 버나드 B. 폴, 1987, 「호지민의 베트남혁명론」, 거름
- R. B. 에스프레이, 1989, 「세계 게릴라전사 1-4」, 일월서각
- 러셀 스테들러 엮음, 1988, 「인민전쟁 군사예술론」, 참한
- 보 우엔 지압, 1988, 「인민의 전쟁 인민의 군대」, 백두
- 튜옹 뉴 탕, 1987, 「베트콩 해방전선」, 사사연
- 유지열 편역, 1986, 「베트남 민족해방 운동사」, 이성과 현실사
- 眞保潤一郎, 1986, 「베트남 현대사」, 미래사
- 이삼성, 1991, 「미국 외교이념과 베트남전쟁: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 외교이념의 보수화」, 법문사

#### 외국논문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자료집 - America's Rented Troops: South Koreans in Vietnam
- Frank Baldwin, 「The American Utilization of South Korean Troops in Vietnam」
- Diane and Michael Jones, 「Allies Called Koreans-A Reoprt from Vietnam」
- John Duffen, 1968, 「Against the Crime of Silence: Proceedings of the Russel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Stockholm-Copenhagen ed.」,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Bertrand Russel Peace Foundation, O'Hare Books

Grant Evans, 1983, 『The Yellow Rainmakers: Are Chemical Weapons Being Used in Southeast Asia?』, Verso,

Martha Hess, 1993, 『Then The Americans Came: Voices from Vietnam』, Four Walls Eight Windows

le Ly Hayslip, 1990, 『When heaven and Earth Changed Places: A Vietnamese Woman's Journey from War to Peace』, A Plume Book

## 영상자료

- 『베트남전의 기억』, 1999년 11월 14일, MBC 시사매거진 2580
- 『베트남 위령탑의 진실』, 2000년 2월 11일, KBS 추적60분

## 별첨 4: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베트남전 양민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 및 공식사과를 촉구하고자 구성되었다. 대책위원회는 참여 각 단체의 개별사업을 상호지원하고 필요할시 신속한 공동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민홍보, 조사연구, 성금모금, 현지조사 등의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1.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 1) 한국정부가 민간단체와 함께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 2) 진상규명을 위해 해외 인권·평화단체, 동포단체들과 국제적으로 연대한다.
- 3) 인터넷, 각 신문 등을 활용하여 학살피해지역에 보내는 성금모금운동을 펼친다.
- 4) 시민대상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 제작한다.

### 2. 이후 일정

2000년 상반기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사과를 위한 문화제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시와 음악의 밤  
 : 시민들에게 베트남전 양민학살의 진실을 알리고 전쟁학살 피해자들의 인권을 되돌아보게하고, 또한 피해지역에 학교건립을 위한 성금을 마련한다.

2000년 하반기

베트남 피해자 한국 초청 순회 강연회  
 : 베트남전 피해자들을 초청해 양민학살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림으로써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한국시민과 베트남인의 아시아 연대를 구축한다.

학술대회

: 베트남전과 한국전 성격, 학살실태 등을 비교분석 발표한다.

### 3.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구성표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b>상임대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li> <li>이해동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이사장)</li> </ul>
<b>자문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li> <li>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li> <li>고경태 (한겨레21 기자)</li> <li>황상철 (한겨레21 기자)</li> <li>구수정 (한겨레21 베트남 통신원)</li> <li>김철준 (다산인권상담소)</li> <li>이용수</li> <li>박찬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li> <li>조용환 (변호사)</li> <li>차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li> </ul>
<b>집행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현숙 (화가)</li> <li>한상진 (함께 가는 사람들)</li> <li>주창석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li> <li>장경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li> <li>혜진 (일본군'위안부'역사관)</li> <li>차미경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li> <li>김현아 (나와우리)</li> <li>정창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li> <li>조진석</li> <li>집행위원장 : 혜진, 차미경</li> </ul>
<b>사무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li> </ul>

### 4.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989년 결성되어 건강한 의사로서의 삶을 고민하는 치과의사들의 모임. 국민건강법 확보를 위한 사업, 수돗물불소화운동, 의료소외계층진료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연락처 : 588-6944, GCA007@hitel.net

나와우리

차별과 편견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베트남 연대 사업, 일본강제징용된 재일조선인들의 지원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락처 : 747-3194, iandwe@netsgo.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여론형성 여론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법률 전문가 단체.

연락처 : 522-7284, m321@chollian.net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평화단체로서 베트남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화해운동, 국내외 기업감시운동, 청소년 및 일반 대중에 대한 평화인권 교육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락처 : 3676-5808/9, khis21@nownuri.net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시설인 「나눔의 집」 부지에 평화인권의 전당으로 건립된 곳.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해를 고발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삶의 흔적을 남겨 후세들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삼고자 한다.

연락처 : 0347-768-0064, y365@chollian.net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7·4 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하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화적 통일을 위해 운동하는 순수민간단체.  
연락처 : 708-4981, onekr@yahoo.co.kr

함께가는 사람들

1999년 5월에 출범한 함께가는 사람들은 국내 대인지뢰 현황 실태조사, 대인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가칭)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등 대인지뢰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베트남전의  
연락처 : 011-9763-9317, hansangj@hotmail.com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지난 시기 문학을 무기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싸웠던 젊은 문인들이 베트남 민중들의 삶을 만나면서 가슴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연락처 : 018-415-0656, grenz@chulsoo.co.kr

###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지난 30년전 한국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죄드리며  
그들을 위해 작은 힘이 되고자 합니다.

대책위원회는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시민홍보, 피해자한국초청순회강연회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베트남전 피해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작은 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뜻깊은 정성은 베트남인과 한국인을  
희망찬 미래로 내딛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용하실 후원구좌는 우체국 010892-0082341 (예금주 : 이준형) 입니다.

###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함께가는 사람들  
나와우리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 대책위원회 사무국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번지 3층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Tel : 02-3676-5808 Fax : 02-3673-5627 e-mail : khis21@nownuri.net / khis21@hotmail.com